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송년특집

순천향의 '아름다운 동행' 은 계속 된다

고도비만수술, 순천향이 최고 권위
부천병원 신생아실의 기적
레이저 위암 절제술 세계 최초성공
불산가스 사태 구미병원이 수습 주도

2012
통합 의료원보 Vol.14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ISSN 2234-103X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SOONCHUN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촛불

나는
그대를 위한
사랑의 촛불이 되겠습니다.

내 영혼을 불살라
내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사랑의 촛불이 되겠습니다.

주르르 흐르는
눈물도 삼켜가며
사랑의 촛불이 되겠습니다.

하이얀 마음이
까맣게 탄 숯덩이가 되어도
사랑의 촛불이 되겠습니다.

그대의 길을
그대의 앞날을
환하게 비쳐주는
사랑의 촛불이 되겠습니다.

글 | 고종만 사진 | 오진목

CONTENTS

통합 의료원보 **Vol.14**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표지설명
송년을 맞아 한 해 동안
보내준 〈순천향〉독자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작가 · 오진목

PHOTO ESSAY 촛불

Feature

02 special 순천향의 '아름다운 동행'은 계속 된다
06 issue1 부천병원 신생아실이 전하는 감동
08 issue2 불산 가스 누출 사고 순천향 구미병원이 수습 주도
10 focus 국내외 최고 권위의 고도비만수술

Confidence

12 history '순천향'의 영원한 진리 향설의 말씀을 다시 듣는다
14 special family 이선미 간호사의 즐거운 이중생활
16 field 천안병원 핵의학과
20 new medicine1 돌발성 난청, '중이 내 주사요법'이 최고
22 new medicine2 레이저 위암 절제술 세계 최초 성공
24 doctor 박준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부원장
26 knowledge1 중증천식환자 겨울철 특히 조심해야
27 knowledge2 추위에 손발 푸르게 변하는 '레이노증후군'
28 knowledge3 "다문화가정 행복은 옹알이 때부터"
30 visit "순천향의대 동문의 '행복한 머슴' 입니다"
32 food 박태균 기자의 푸드&메드

Communion

34 people '천만배우' 류승룡의 재발견
36 doctor recipe 황인철 교수의 특별한 레시피
38 travel 김진국 교수의 걷기 예찬
40 contribution "의사들의 합창이 세상을 밝게 합니다"
42 world class '블랙 아이보리'
44 book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45 movie & stage 연말 어떤 공연 볼까?

Communication

46 news 순천향 뉴스
48 alumnus 동창회 알림
50 schedule 진료 일정표
53 letter of thanks 감사 편지

〈순천향〉 애독자께 알림

〈순천향〉에서는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차원에서 애독자 여러분의 기고와 수기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물론 환자와 가족, 일반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연락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기획실 02)709-9592 FAX 02)709-9594 E-mail baekju1@naver.com

발행일 2012년 11월 15일 **발행인** 김성구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7)
홍보팀 02-709-9120 **기획 편집 제작** 피앤플러스 백승주 02-2269-5689 **인쇄** 상림인쇄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은 무단 전재 및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순천향의 '아름다운 동행'은 계속 된다

장애우 위한 맞춤형 채용…예약상담 등 병원 업무 '척척'

신체활동이 부자연스럽다는 이유로 비장애인의 편견은 물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우리는 '장애우'라고 부른다. 과거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달라진 게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순천향대학병원의 '장애우와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는 대한민국 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보여 주기 식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인 취업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글_ 조영곤

천안병원은 고객들의 원내 이동편의를 위해 전동카트를 운영중이다. 운동장애우 정명주(남/53) 직원이 친절하게 고객을 카트로 모시고 있다.

시각장애 2급 김미경(가명/여)씨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 예전 같으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또다시 시작된 고통스런 하루'였을 텐데 이제는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미경씨의 상쾌한 아침 비결은 다름 아닌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매일 아침 콧노래를 부르며 순천향대학 서울병원으로 출근을 한다. 담당업무는 병원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인 '콜센터 업무'다.

사무실로 출근하면 그녀 말고도 4명의 장애우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서로 보듬고 격려하며 일하는 미경씨의 일터는 '행복 충전' 그 자체다.

"출근을 위해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는 일상이 저에겐 최고의 '행복'입니다. 요즘 청년실업,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있죠. 저희 같은 장애우는 무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음.... '권리박탈'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네요. 그만큼 장애우를 대하는 사회적 시선이 차갑고, 단절돼 있다는 뜻이죠."

김미경씨의 사례처럼 장애우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도나도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외쳤지만 딱 그때뿐이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세계적 복지시스템을 자랑하는 북유럽 3인방 역시 장애우 등을 위한 사회 기반 조성에 30년 이상을 투자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장애인에서 그들을 보듬자는 의미의 장애우로 표기를 달리 한 4~5년 전이 시작이라면 시작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추정 장애우 수는 268만명으로 인구 1만명당 561명이 장애우다.

장애우들의 생활만족도는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비장애인과의 상대적 소득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장애우들이 국가 및 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순천향대학 서울병원에 근무 중인 시각장애우 김미경씨 사례와 일맥상통한다. 장애우들은 소득보장(38.2%), 의료보장(31.5%), 고용보장(8.6%) 등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장애우 채용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내부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순천향대학병원의 장애우 채용은 관련 산업 뿐 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모범 답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순천향대학병원은 전화예약, 우편물 관리, 조경관리 등 맞춤 채용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장애우들의 업무 향상은 물론 만족도 배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병원과 장애우 모두 만족할 만 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순천향대학병원 관계자는 "서울, 부천, 천안, 구미 등 전국 4개 병원은 콜센터 업무 등 장애우와 함께할 수 있는 직업군을 확대해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장애우와)함께하면서 비장애인의 편견이 이들의 사회 진출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앞으로도 순천향대학병원은 채용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러스트 남동윤

Mini Interview

부천병원 콜센터 **조혜자** 상담원

"진심이면, 통하지 않을게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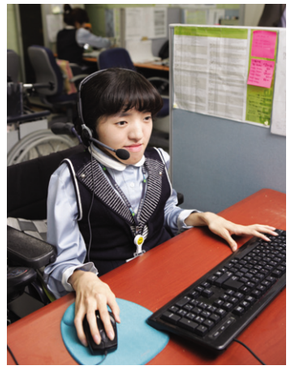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장애를 얻게 된 조혜자씨는 평범한 가정주부 생활하다가 3년 전 협력업체 직원으로 부천병원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부천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조 씨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인정받아 다음해 콜센터에 스카우트됐다. 자리를 옮겨서도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누구나 칭찬하는 상담 전문가가 됐다.

"제 노하우요? 진심이죠. 할아버지가 전화하시면 저희 아버지 같아서, 젊은 사람이 전화하면 제 아들 같아서 가족 대하듯 진심으로 상담해드리니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보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한다. 전문적인 상담으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때 조 씨는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조 씨는 병원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장애우들에게 일 할 때 신체의 '장애'는 사소한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다고 한다.

"부천병원 콜센터는 장애우들에게 매우 소중한 직장입니다. 상담업무를 하려면 각 진료과에 대해 공부해야하고, 환자분들에게는 감성적으로 대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요. 일을 하면서 인정을 받고 안 받고는 장애 여부가 아닌 자신의 노력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병원의 얼굴 '콜센터'…"수만건의 상담도 문제없다"

병원에서 진료 안내, 예약 등을 담당하는 콜센터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다. 병원 신뢰도, 친절도 등을 평가하는 기본 항목 가운데 하나로써 병원의 '얼굴' 이라고 할 수 있다.

순천향대학 전국 4개 병원의 콜센터에서 장애우들의 활약은 대단하다. 서울병원 5명, 천안병원 10명 등 2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병원 콜센터는 상당히 복잡하다. 일단 병원별로 100명이 넘는 의료진의 진료과목은 물론 입 · 퇴원, 외래 진료 절차 등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포함한 각종 정보를 꿰고 있어야 한다.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장애우들의 절실함은 병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다.

소외됐던 기억 때문일까, 매사에 적극적이다. 또한 상담 전화 하나 하나에 정성을 기울여 청취한다.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상담 전화의 불쾌감을 이들에게는 전혀 느낄 수 없다.

부천병원 콜센터 최고의 상담전문가로 통하는 조혜자(여) 상담원은 "노하우는 진심이다. 할아버지가 전화하시면 아버지 같아서, 젊은 사람이면 제 아들 같아서 가족 대하듯 진심으로 상담하고 있다"며 "순천향대학병원 콜센터는 장애우에게 매우 소중한 직장이다. 일을 하면서 인정을 받고, 받지 않고는 장애 여부가 아닌 노력에 달렸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서비스…전국 최고 상담원도 배출

순천향대학병원 콜센터에서 근무 중인 장애우 직원이 최근 전국 40만명에 달하는 상담원 가운데 최고의 상담원으로 선정됐다. 영광의 주인공인 천안병원 김상숙(여, 34) 상담원은 한국고객센터기술경영콘퍼런스가 지난 10월 발표한 '2012 베스트 고객센터 요원' 으로 선정됐다. 특히 병원 콜센터 상담원으로는 첫 수상이라 더욱 의미와 가치가 빛났다. 전국 40만 상담원 가운데 최고의 1인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은 천안병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장애우 직원들의 성실과 열정이 바탕이 됐다. 천안병원은 센터장을 제외한 10명의 상담원이 모두 장애우다. 초기 어려움도 있었지만 병원은 각종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김상숙 상담원을 비롯한 직원들은 진료 예약, 변경은 물론 연말정산 접수 등 다양한 업무로 영역을 넓혀나갔다. 또한 초진 환자들에게 사전 연락을 취해 진료의뢰서 지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진료예약 취소율을 감소시키는 병원 업무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상숙 상담원은 "좌우명이 '최선을 다해 최고가 되자' 이다. 고객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바로 앞에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 채용'…부천병원의 새로운 시도 '호평'

순천향대학병원의 장애우 채용이 사회적 모범사례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부천병원의 '열린 채용' 이 새로운 시도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부천병원은 지난해부터 병원 업무를 희망하는 장애우를 우선 채용한 후 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열린 채용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다. 열린 채용 결과 장애우 직원 비율이 급증했으며 이들의 역량 발휘, 따뜻한 일터에 대한 분위기 조성 등 긍정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 부천병원 재직 장애우의 업무영역도 상당히 다양하다. 부천병원에 따르면 직원들은 콜센터 · 우편물관리 · 조경관리 · 진단검사의학과 · 전공의숙소 등 다양한 부서에서 상생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부천병원 관계자는 "콜센터 등 막연히 장애우들의 역할을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채용 후 이들의 다양한 역량을 고려한 업무 배치가 '열린 채용' 의 핵심"이라며 "새로운 채용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장애우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성과, 그리고 병원 업무 효율성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1 장애아동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구미병원 의료진
2 천안병원 콜센터 모습
3 구미병원 본관 로비에 마련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창구

채용과 더불어 공동체 형성에 '노력'

순천향대학병원은 장애우 채용 등 고용 안정화 노력이외에 장애우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에는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구미병원의 '혜당학교(장애우 교육시설) 무료 건강검진' 도 이 같은 노력 가운데 하나다. 구미병원은 지난 1995년부터 매년 4월 지적 장애 및 청각장애아의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혜당학교를 찾아가 무료 건강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검진보다 2~3배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아이들이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그마한 밀알이 된다는 사명감에 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우가 장애를 이유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매년 1회 구미시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장애우의 의료 복지와 치료 지원에 애를 쓰고 있다. 또한 병원내에 장애우 전용 창구를 개설해 1:1 응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또 다른 노력 가운데 하나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료상담서비스' 도 주목받고 있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척수장애를 갖게된 환자를 동일 장애 경험자가 찾아가 아픔과 고통을 이겨낸 경험을 공유하는 일종의 재활 프로그램이다.

구미병원 관계자는 "구미 지역 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장애우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늘 고민해 왔다"며 "그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유하면서 눈에 보이는 질환 뿐 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보듬는 진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올 여름 470g으로 태어난 진 군의 퇴원기념파티가 부천병원 신생아실에서 열렸다.

470g으로 태어나 건강하게 퇴원한 진 군

부천병원 신생아실이 전하는 감동

지난해 신생아 무수혈치료 성공에 이어 올해는 470g 극소 미숙아도 성공적으로 키워내

정리_ 편집부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렴!"

10월 15일(월) 오전 10시 부천병원 신생아실에서 조촐한 기념파티가 열렸다. 이 날은 지난 여름 25주 5일 만에 470g으로 태어나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산하 병원의 미숙아 최소 몸무게를 갱신한 진○○ 군이 몇 달간의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분홍색 간호사복을 입은 신생아실의 '엄마'들은 몇 달간 함께 지낸 진 군이 퇴원하는 것이 몹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든 정 때문인지 눈시울이 붉어진다. 진 군은 이렇게 신생아실의 극진한 치료를 받고 씩씩한 모습으로 엄마 품에 안겨 병원 문을 나섰다.

최소 채혈 검사 시행, 미숙아 무수혈 치료 성공

조기 신생아 관리가 의료 서비스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험신생아, 극소저체중출생아, 조산아 부모들이 체계적 의료시스템을 갖춘 부천병원 신생아실로 '러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많은 저체중 미숙아들이 부천병원 신생아실 의료진들의 보호 속에서 건강을 되찾았다. 올해 10월 470g의 초극소 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난 진○○ 군은 한 때 360g까지 체중이 감소됐었지만 몇 달간의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부천병원 신생아실은 이미 2009년 720g으로 태어난 아이를 성공적으로 치료했으며, 2010년도에는 24주 만에 출생한 신생아도 치료를 통해 무사히 엄마 품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미숙아 무수혈 치료 및 최소 수혈 치료에 있어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부천병원 신생아실은 미숙아들의 채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미숙아들은 퇴원 전까지 통상 7~8회 이상의 혈액 채취를 통한 각종 검사를 받는다. 그러나 부천병원 신생아실은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미숙아들의 혈액 채취를 3~4회로 최소화하고 있다. 채혈용기도 성인용에서 미숙아용으로 교체해 일반적으로 신생아 검사시 5~6cc를 채혈하는 것에 반해 2cc 미만의 최소 채혈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가 쌓이면서 지난해 말 태어난 한 극소미숙아에게는 모든 치료를 성공적으로 무수혈로 진행, 신생아실의 치료성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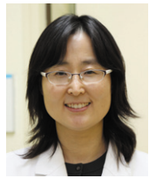
신생아 맞춤형 치료 … 다태아 위한 인프라도 잘 갖춰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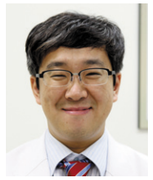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는 타 진료과와의 협진을 통해 미숙아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신생아의 동맥관개존증을 수술할 때에는 환아가 수술실로 이송되는 것이 아니라 흉부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의 협진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진행한다. 동맥관개존증이란 출생 후 정상적으로 닫혀야 할 동맥관이 닫히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심부전증과 폐부종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주로 미숙아에게 발병된다. 또한 안과와의 협진을 통해 미숙아 망막증에 대한 조기진단 및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신생아들을 위한 첨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 및 다태아 부모들이 부천병원 신생아실을 선호하는 이유다. 부천병원 신생아실은 2010년 36명, 2011년 42명, 2012년 9월 현재 35명의 쌍둥이 신생아를 돌봤는데, 이는 쌍둥이 및 다태아를 위한 다양한 의료 인프라가 밑바탕 돼야 가능한 실적이다. 특히 2010년도에는 국내 9번째 네쌍둥이가 부천병원에서 태어나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올해는 27주만에 세쌍둥이가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건강하게 퇴원했다.

부천병원 신생아실의 첨단 시스템과 의료진의 우수한 치료성과는 이렇듯 각 분야에서 검증되고 있다. 의료진들의 밤낮 없는 진료와 신생아들을 위한 꾸준한 인프라 구축으로 부천병원 신생아실이 중증 신생아 치료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다.

■ **소아청소년과 김성신 · 진장용 교수**





Q. 부천병원 중증 신생아 치료 실적의 저력은?

간호사, 전공의, 교수가 환아를 돌보는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과들과의 협진 시스템도 중증 신생아 치료 성과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Q. 향후 부천병원 신생아실의 발전 방향은?

신생아 중환아, 극소 저체중 출생아, 미숙아 등 다양한 고위험 신생아들에게 최고의 치료기관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체계적인 진료를 통해 타 병원에서 전원을 의뢰하는 서부권 지역 최고의 신생아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생아실 박종희 팀장**

Q.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출생당시 상태가 좋지 않아 모두가 걱정했던 아이가 치료를 받은 후 나중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신생아실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 옵니다.

Q. 중증 신생아 부모들에게 주는 용기의 한마디는?

미숙아들은 아픈 것이 아니라 너무 일찍 세상에 나와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로 사랑과 의료진의 정성어린 보살핌을 받으면 가족품으로 돌아갈 날이 찾아옵니다. 저희가 엄마처럼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진료하고 있는 김성신 교수

불산 가스 누출 사고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이 수습 주도

불산건강영향조사단장 우극현 교수,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아쉬워"

지난 9월 27일, 구미 지역에서 발생한 불산 가스 누출 사고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앙'이자 '절망'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퍼져나가는 '괴담'에 주민들의 공포는 확산됐고 이사를 가장한 '피난'을 떠나는 이들도 늘어났다. 사건발생 후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불산 가스 누출 사고의 진실을 알아본다.

글_ 하상원 사진_ 임운석

'구미시 건강지킴이', 그 명성 그대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사고 직후 자체적으로 '불산 진료전담반'을 조직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와 치료는 물론 사건의 역학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과 상담 등을 병행하며 2000건이 넘는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또한 좀 더 정확한 실태 파악과 향후 조치를 위해 조직된 '주민건강영향조사단'에 우극현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단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가 가능해졌다. 환경부와 각계의 의학전문가, 지자체 관계자로 이뤄진 조사단은 구미병원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역학조사와 향후 조치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무분별하게 확산된 괴담수준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는 것. 물론 불산 가스에 대한 피해나 후유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구미병원에 입원한 11명의 환자들의 증세도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고 피해 역시 순차적으로 수습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구미병원은 내원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상황을 전달해주기 위해 노력한다. 우 교수와 함께 불산 진료 팀에 지원한 김진석 · 윤성용 · 조성용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들은 하루에 2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환자들의 안심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번 불산 사태에는 직업환경의학과 외에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도 합심해 주민들의 건강 회복에 앞장섰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주민들의 불안이 차츰 가라앉고 있는 모양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의 발 빠른 조치가 있었기에 국내에서 유례가 없었던 불산 가스 유출 사고에 대한 의료적 조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다.

불산 누출 관련 주민건강영향조사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극현 교수는 신속한 치료와 안전장치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는 다짐이다.

불산 가스 누출 인근지역의 공장 근로자를 진료하고 있는 구미병원 의료진

주민 건강검진 조사 현황 및 향후 건강피해 확인하는 불산건강영향조사 Q&A

신속한 조치와 치료, 안전장치 마련돼야

Q 건강영향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A 건강영향조사는 건강영향 설문조사 · 검진자료분석(1단계), 정밀건강영향평가(2단계) 및 추적 · 확인조사(2단계조사 6개월 후) 총 3단계로 실시하게 된다. 조사단은 2012년 10월 5일~ 2013년 7월 30일까지 사고지역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대상은 사고지점 반경 1.5㎞이내, 피해제보지역 주민, 사고 인근 사업체 근로자 등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1단계로 대상자 등록, 건강영향 설문조사 및 진료 및 검진자료 등을 분석한다. 2단계로 정밀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단계에서는 추적 및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Q 현재까지 주민건강영향조사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A 지난 10월5일 건강영향조사를 착수했다. 신뢰도 확보를 위해 주민대표 추천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포함했다. 이어 13일에는 봉산리 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 구강 · 골밀도 검사, 생체시료 채취(손톱, 소변)를 완료했고, 16일~ 17일까지 이틀 동안에는 옥계동부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희망자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다. 또 사고 인근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영향조사 대상자를 파악한 후 10월 18일~ 31일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Q 노출 당시 주민건강 상태는 어떠했나?

A 내원환자에 대한 진료의사의 주요 진료 소견에 따르면 환자들은 목, 코, 눈 등 자극증상, 감기와 유사한 호흡기 관련 증상, 피부발진, 두통, 소화불량 등을 호소했으나 대부분 경증이다. 또 혈액검사, 흉부 X선 촬영검사 등에서도 정상소견을 보였다.

Q 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은?

A 10월 11일~ 12일까지 공공시설에 분산 대피 중인 지역주민 52명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진료를 시행했다. 선별검사 시행 우선순위는 1순위는 공공시설에 분산 대피 중인 지역주민, 2순위는 농작물 및 가축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3순위는 불산 노출 사고 해당 업체 및 인근 공단 내 근로자 등이다. 고위험군 관리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질환 · 정신건강문제의 완화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과 치료를 연계한다.

Q 장기적으로 검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대책

A 우선 지료 및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향후 2년간 추적 관리를 통해 결과를 분석한 후 장기적으로 추적관리가 필요한 주민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이용자료 현황, 암등록 자료 등 의료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직접 진료 등을 추진키로 했다.

Q 이번 사고를 겪으며 현재 대한 갖춰야 할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이번 구미 불산 가스 유출사고는 국내에서는 최초의 사례로 전혀 관련 자료가 전혀 구비돼 있지 않아 불안을 더욱 확산시킨 측면이 강하다. 향후에는 불산 뿐만이 아니라 각종 화학약품 사고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속한 조치와 치료, 지속적인 현장감독을 통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란 안일한 생각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국내외 최고 권위의 고도비만수술

순천향대 서울 · 천안병원 고도비만수술센터 '베리아트릭' 수술이 해결책

정리_ 편집부

최근 식이 및 생활습관의 서구화로 우리나라의 비만인구가 소아, 성인 할 것 없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비만인구는 30%이고, 그들 가운데 고도비만 인구는 약 14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비만은 각종 만성질환과 우울증 등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며, 현대인의 대표적인 공공의 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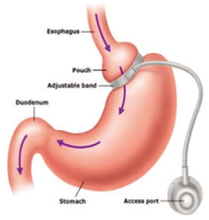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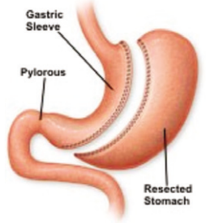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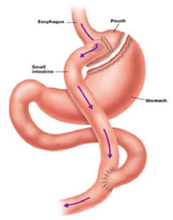
각종 중증질환을 야기하는 고도비만

의학적으로 자신의 체중을 키의 제곱 값으로 나눈 것을 체질량지수(BMI:kg/m²)라고 한다. 체질량지수가 25~30미만이면 경도비만, 30~35미만을 고도비만, 35이상을 초고도비만으로 구분한다. 비만이 야기하는 질환은 꽤나 많고 심각한 편이다. 고도비만 환자들은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의 만성적 대사이상으로 인한 대사증후군에 가장 취약하며, 이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과체중으로 인한 관절질환을 비롯해 우울증, 대인관계기피증, 코골이, 여성의 경우 무월경 현상 등 다양한 질환들이 고도비만으로 인해 흔히 발생된다.

고도비만 탈출구는 '베리아트릭 수술'

비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체중감소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체중감량이 쉽지 않다. 엄청난 각고의 노력으로 설령 체중감량을 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확률은 경도 비만환자에 비해 월등하게 낮고, 요요현상 또한 더욱 나타나기 쉽다. 절망스러운 고도비만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이 있다. 바로 베리아트릭 수술이다. 비만, 혹은 체중을 치료한다는 그리스어에서 기원한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적 치료법인 베리아트릭 수술은 현재 많은 고도비만 환자들에게 적용되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베리아트릭 수술 종류

구분	위 밴드 성형술	위 소매 절제술	위 우회술
대상	• 폭식, 과식 • 간단한 수술을 원하는 경우	• 폭식, 과식 •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경우	• 고지방 육류, 유동식의 식사를 주로 하는 경우 • 심한 초고도 비만 환자
정의	• 밴드를 이용해 음식 섭취량을 줄임	• 위의 일부분을 절제해 위의 크기를 줄임	• 음식이 내려오는 길을 분리해 음식의 흡수 제한
효과	• 먹는 양이 줄어 체중감량에 효과 있음	• 쉽게 포만감이 들어 먹는 양이 줄어들고 과식, 폭식을 멈추게 됨 • 식욕감소 효과 뚜렷	• 소화, 흡수되는 부분이 적어 체중감량 효과가 큼 • 장기간 체중 유지에 유리함
장점	• 수술이 간단함 • 자신의 위 사이즈 조절가능 • 밴드를 빼내고 원래의 상태로 복구가 용이함 • 50% 초과체중 감소	• 수술법이 간단해 합병증이 적음 • 소식하는 체질로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 • 비타민, 칼슘, 철분, 미네랄 등의 영양학적 불균형이 적음 • 60% 초과체중 감소	• 당뇨병 호전 뚜렷 • 70% 초과체중 감소 (체중감량효과가 큼)
사진			

베리아트릭 수술 종류

크게 3가지로 나눈다. ▲위 밴드 성형술 ▲위 소매 절제술 ▲루와이 위우회술 등이며, 모든 수술은 복강경으로 진행된다. 각각의 수술방법, 그리고 효과와 장점을 살펴보면 왼쪽 표와 같다.

고도비만수술 후에는 반드시 주치의의 지도에 따라 식사를 진행해야하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체중감량의 정도, 영양소 결핍,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완전히 교정하는 것이다. 행동습관 교정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강력한 체중감량 수단이기 때문이다.

고도비만수술의 메카…순천향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고도비만수술센터는 현재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외과 김용진 교수가 이끌고 있는 센터는 세계적으로도 그 명성이 자자해 뉴질랜드, 미국, 파라과이, 중앙아시아 등지에서까지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고도비만수술=순천향' 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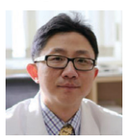
서울병원 고도비만수술센터의 명성이 이제는 천안병원으로 이어질 태세다. 2012년 천안병원도 하반기부터 고도비만수술센터를 열고 진료를 시작했다. 이로써 그동안 지방의 고도비만 환자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병원으로 향해야했던 불편과 고충을 덜게 됐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외과 강길호 교수는 고도비만수술(대사 및 비만수술)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플로리다의 클리블랜드클리닉에서 유학을 다녀왔다. 강 교수가 유학했던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매월 약 50여 건의 대사 및 비만 수술을 시행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강 교수를 지도했던 Dr. Rosenthal 교수 또한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대사 및 비만 수술 의사다.

강길호 교수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대사 및 비만수술을 처음 받는 환자에서부터 과거에 받았던 비만수술의 합병증으로 인해 재수술 환자까지 매우 다양한 수술들을 직접 경험했다. 강 교수는 촉망받는 고도비만수술 전문교수다. 그는 현재 유학 1년간의 경험과 연구결과를 논문에 담아 유수 학술지에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비만수술과 관련된 대장질환 및 신장질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 중에 있다.

순천향 고도비만수술 전문교수

서울병원 외과 김용진 교수



02-709-9240
진료일정〉
화 | 종일 · 금 | 종일

천안병원 외과 강길호 교수

041-570-2140
진료일정〉
월 | 오후 · 목 | 오후

'순천향'의 영원한 진리 향설의 말씀을 다시 듣는다

정리 _ 편집부

서석조 박사 생전의 집무 모습.

순천향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는 언제나 행동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 말보다는 실천이 앞섰고, 그의 철학과 가치관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왔다. 그의 침묵은 웅변보다 강했다. 지금, 우리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을 맞아 그가 남긴 이야기에서 향설의 '참인간사랑'의 면모를 다시 확인하며 후학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인술과 치료, 자선사업을 혼돈하는 것은 몰상식입니다.

‖ 1962년 9월 13일 경향신문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째서 의과대학을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충남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에 세웠느냐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본인의 순천향의대 설립 취지가 되겠기에 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혜택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더욱이 의사의 도시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농촌의 의료혜택은 아주 보잘것없는 형편이어서 아직도 무의촌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본 순천향의과대학의 설립은 본인이 평소에 품고 있던 우수한 의학도의 배출 및 농촌 의료 문제 해소를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고자 하는 뜻의 구현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의과대학을 통해 훌륭한 의술을 연마한 많은 의학도가 배출되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치료함은 물론 새로운 의학 연구의 산실로서 명실 공히 국가, 사회에 봉사하는바 크리라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 〈향록학보〉 1978년 9월 30일 창간호

소신을 다하는 실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하는 일에 기쁨을 느껴야겠습니다. 기쁨이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사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기쁜 마음으로 임할 때 소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그 성과가 비로소 나타날 것입니다.

‖ 〈향록학보〉 1978년 9월 30일 창간호

본인은 오늘 졸업하는 제군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우리 대학의 설립이념이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와 민족에 유익한 인재를 배출하는 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 1984년 제 1회 졸업식 치사, 〈향록학보〉 1983년 2월 29일

본인은 평소 병원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소견을 피력해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료기기, 아무리 훌륭한 병원시설을 갖췄다 하더라도,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아주려는 의사의 마음가짐이 없다면 그 의료기기는 한낱 쓸모없는 기계에 불과할 것이고, 환자를 정성으로 보살펴주려는 간호사의 봉사정신이 없다면 그 의료시설은 쓸데없이 공간만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 1985년 신년사 〈순천향서울병원보〉 1985년 1월호

오만하고 부정적인 자세는 자칫 자기 삶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진지한 생활자세 속에서 우리는 값진 삶의 자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985년 졸업식 식사, 〈향록학보〉 1985년 2월 21일

순탄한 연륜보다는 그 속에 크고 뚜렷한 무늬가 생기는 연륜을 만들자는 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우리 순천향인의 몸부림이요 노력의 증거이며, 나아가 한국 대학사에서 틀림없이 각명한 자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개교 9주년 기념치사, 〈순천향서울병원보〉 1986년 6월호

대학병원은 교육, 연구, 진료 등 3박자가 조화를 이루어 고루 발전할 때 그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병원은 어느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는 공익기관이다.

‖ 〈병원회보〉 1987년 4월 27일자

고통받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여 인술을 베푸는 것, 그리고 그들을 내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보살피고 간호하는 것이 곧 사랑과 봉사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시설이나 고가의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사랑과 봉사의 정신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 1996년 신년사, 〈순천향 의료원보〉 1996년 1월호

의료인은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나아가 완쾌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육체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의료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보는 일인 것입니다.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가짐이란 다름 아닌 깊은 관심과 사랑을 뜻합니다. 사랑이 깃들지 않은 진료 자세는 결코 최선의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은 부(富)나 명예를 추구하는 직업도 아니요, 자기 현시적 출세를 지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삶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가장 낮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 〈순천향연보〉 제 3호

'평일에는 간호사 주말에는 배구선수' 그녀의 즐거운 이중생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이선미 간호사의 '우생순'은 해피엔딩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의 실화를 재구성한 영화 '우리 생에 최고의 순간(이하 우생순)'은 목표를 가진 이가 얼마나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종목은 다르지만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의 이선미 간호사 역시 우생순의 그녀들처럼 꿈을 찾아 다시 한 번 배구공을 잡았다. 간호사와 배구선수를 넘나드는 그녀의 '이중생활'을 함께 했다.

글_ 하상원 사진_ 임운석

어린 시절 꿈, 순천향에서 영글어

이선미 간호사를 만난 것은 가을 햇살이 제법 강하게 느껴지는 어느 날 오후였다. 병원 인근에 위치한 야외 배구코트에서 그녀를 기다린 지 10여 분. 저 멀리서 뛰어오는 이 간호사의 모습이 보였다. 긴급을 요하는 의료업무가 주된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이 간호사의 첫 이미지는 '건강하다'란 말 이외에는 달리 적절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초등학교 시절 배구와 인연을 맺은 이 간호사는 83년과 86년에 경북대표로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할 만큼 출중한 실력을 뽐냈다. 하지만 기대만큼 키가 크지 않는 신체적 한계와 여러 여건이 맞물려 86년 소년체전을 끝으로 배구선수로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아쉽게 배구공을 놓은 지 20년. 하지만 낭중지추라는 말마따나 소싯적 실력이 어디로 갔던 것은 아니었다. 병원 체육대회 피구대회에서 선보인 이 간호사의 솜씨 때문에 병원 동료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다고. 매섭게 내리꽂히는 그녀의 피구공에 맞은 이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눈물이 찔끔 흐를 정도였다.

그것을 계기로 이 간호사는 다시 한 번 배구와 인연을 맺게 됐다. 간호사로서의 업무에 충실했던 2008년의 어느 날, 구미 배구클럽인 '선백회(선산에서 백구를 사랑하는 모임)'로부터 입단 제의를 받았던 것이다. 이후 꾸준한 연습과 각종 대회(구미시장배 등) 출전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경상북도 도민체전에까지 참가하게 됐다. 어린 시절 못 다 이룬 꿈이 꽃을 피운 것은 지난 2011년이었다. 구미대표로 선출돼 첫 출전한 2010년 도민체전에서 2위에 입상하며 꿈에 단 한 걸음만을 남겨놓더니 2011년 대회에서는 기어코 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것이다. 이 간호사는 "좋은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로 공을 돌리며 "그래도 내가 있었기에 우승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농을 던졌다.

그녀의 포지션은 '리베로(전문수비수)'로 모든 공격의 시발점이자 동료 선수들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의사와 의료 업무를 분담하며 주연과 조연을 넘나드는 간호사란 직업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포지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늘 뛰어다니는 '작은 수퍼우먼'

2시간이란 짧지 않은 시간동안 지켜본 이 간호사는 단 한번도 '걷지' 않았다. 의약품을 가지러 갈 때도, 긴급호출로 응급실을 향할 때도 그녀는 항상 뛰고 있었다. 힘들지는 않을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리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원래 체력이 좋은 편이었고 최근에는 다시 운동을 시작한 후 1주일에 3~4차례씩은 연습을 하니 오히려 힘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빡빡한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한 바탕 땀을 흘리고 나면 깨끗이 없어지니 이보다 더 좋은 취미는 없는 것 같아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고대 로마 시인인 유베날리스의 말처럼 그녀 역시 배구라는 취미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제고시키고 있는 것이다.

늘 웃는 얼굴로 환자를 대하는 이 간호사의 일상은 업무나 직업이 아닌 '일상' 그 자체였다. 커피를 마시며 제법 긴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점심식사를 함께 하고 연습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모습에서도 그녀의 입가에 머문 것은 즐거움이란 이름의 미소였다. 건강한 미소가 아름다운 이선미 간호사가 불어넣어주는 활력이 있기에 오늘도 구미병원의 하루가 기분 좋게 흘러간다.

"2mm 암세포 꼼짝 마라!"

국내 4대뿐인 128슬라이스PET-CT 도입…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최고의 팀 '핵의학과'

지난 2011년 6월 정식 진료과목으로 핵의학과가 신설되면서 이상미 교수가 초대 핵의학과 과장으로 부임해 현재의 부서를 이끌고 있다. 이 과장은 부임 후 2011년 7월까지 갑상선암 치료에 이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병실도 2실을 신설해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대전충청 지역과 경기남부지역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2월에는 국내 최고 성능의 최첨단 128슬라이스PET-CT를 국내 대학병원에서는 두 번째로 도입해 가동했다. 이는 중부권 지역주민의 의료 환경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다.

전신에서 발생하는 암을 한 번의 검사로 거의 대부분을 진단해 낼 수 있는 장비로 현재 전

아침조회 시간, '고객만족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간난 아기의 신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핵의학과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해 각종 악성 질환, 내분비 질환, 심장질환, 뇌신경 질환 등의 진단과 치료를 한다. 특히 방사성동위원소를 체내에 주입해 방출되는 감마선을 영상화하는 장치를 이용해 인체의 해부학적, 생화학적인 정보를 영상화 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곳이 바로 '핵의학과'다. 최첨단 설비와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순천향의 자랑, 순천향대천안병원 '핵의학과'의 하루를 들여다본다.

글_ 전진용 사진_ 안성욱

세계에서 사용되는 PET-CT 가운데 가장 최신 기종이다. 가장 많은 채널수를 보유해 환자들에게 빠른 검사 서비스가 가능하고 2mm의 작은 암 병변까지 구별해 낼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해상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만큼 환자들에게는 매우 편리할 뿐 아니라 정확한 암 검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128슬라이스 PET-CT는 다른 기종에 비해 방사선의 양이 절반에 불과해 방사선 피폭양이 적어 더욱 안전한 검사가 가능하다. 암 조기 진단 외에도 암수술 전 병기확인과 치료 후 평가에도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암 진단과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료장비다.

또 하나의 자랑은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병실(이하 옥소치료실)이다. 갑상선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특수병실, 치료시 사용되는 방사성 물질인 옥소가 병실 밖으로 새 나오지 않도록 사방 벽과 출입문이 납으로 3중 차폐 처리되어 있다. 이 옥소치료실 신설로 충청지역 갑상선암 환자들의 치료에 숨통이 트였다. 이 옥소치료실 신설로 충청지역 갑상선암 환자들의 치료에 숨통이 트였다.

이런 각종 암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순천향의 자랑 '핵의학과'는 이상미 과장을 수장으로 하여 최학기, 이재곤, 이기현, 윤재식, 임광석 방사선사와 박미화, 서경화 간호사 등 총 8인이 한 팀을 이루고 있다. 최강의 설비, 최강의 전문가로 구성된 핵의학팀은 '사랑의 실천으로, 고객을 행복하게'라는 신념으로 하나된 순천향 최강의 팀워크를 자랑한다.

07:50 과원들이 매일 아침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 고객만족 실천선서식을 통해 마음가짐과 목표, 그리고 비전을 되새긴다. 업무에 대한 토론과 지침사항 전달도 이 시간에 이루어진다. 8명의 팀원은 간단한 선서 후 짧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다. 전날의 업무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금일 중요한 사안에 대한 재확인도 이루어진다.

PET-CT 검사를 위한 18F-FDG를 환자에게 투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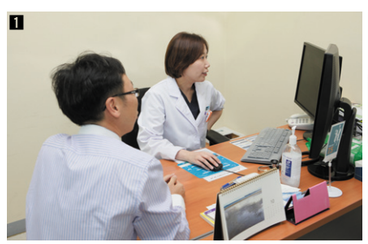
08:00 가장 중요한 장비이자, 순천향 핵의학과의 자랑인 PET-CT 장비의 정도관리가 이루어진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PET 정비와 감마 카메라 장비의 정도관리도 시작된다.
Generator에서 99mTc 추출 및 방사성의약품 조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골밀도 측정장비, 갑상선 섭취율 장비 등의 정도관리도 함께 진행된다. 모두가 중요한 장비인 만큼 가장 신중하고도 진지한 모습으로 바삐 움직인다. 하루에 있을 모든 검사 장비를 점검하는 만큼 모든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분담한다.

08:20 환자의 첫 검사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검사 받을 환자는 탈의 후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 환자의 신체에 따라 검사를 위한 주사약의 양이 달리 적용된다. 환자에게 PET-CT 검사를 위한 혈관주사가 놓아진다. 주사를 맞은 환자는 안정실에서 1시간 안정 후 500cc의 물을 먹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본격적인 PET-CT 검사가 시작된다.
전신 검사의 경우 20분 정도가 소요되며 몸통 검사는 약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환자의 과거력 분석 등 데이터 정리도 함께 진행된다.

09:00 매주 수요일 9시는 핵의학과의 외래진료 시간이다. 충청지역에서는 유일한 검사장비로 인해 외래환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핵의학과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이 분야 전문가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이상미 핵의학과 과장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신 PET-CT 검사장비와 옥소치료실 등의 시설을 완벽히 갖추고 있어 중부지역의 많은 환자들이 이 곳으로 외래진료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갑상선암 치료에 있어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13:00 갑상선암 환자의 옥소치료실 입원을 위한 제염활동이 진행된다. 옥소가 방사성 물질인 만큼 입원을 위한 준비는 더욱 철저히 진행된다. 윤재식 방사선사는 "방사선 의료 피폭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 거 같아요.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될 뿐 아니라 적당량의 치료목적의 방사선은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1 매주 수요일 오전, 핵의학과 이상미과장님이 외래 진료를 하고 있다.
2 핵의학과 직원들이 PET-CT조정실에서 검사환자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
3 18F-FDG 주사 전, 환자의 키, 몸무게, 혈당 등 기본적인 문진을 하고 있다.



14:00 옥소치료실 환자에 대한 면담이 진행된다. 옥소치료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치료과정에 대해 꼼꼼히 설명해준다. 환자의 궁금증도 해소시켜 줘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기도 한다. "옥소치료와 같은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환자들이 지나치게 두려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환자들의 잘못된 선입견을 없애고 두려움을 없애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이상미 핵의학과 과장의 설명이다.

16:00 옥소치료실 환자에게 치료를 위한 I-131 투여가 이루어진다.

16:40 이른 아침의 선서식과 같이 이상미 과장을 비롯한 전 팀원이 한자리에 모인다. 핵의학과 컨퍼런스를 위해서다. 매일 전 팀원은 그날의 환자와 진료, 치료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어느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30분간의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이상미 과장과 방사선사, 그리고 간호사들에게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정리할 뿐 아니라 내일의 진료와 치료를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컨퍼런스 시간이다.

17:00 퇴근 시간이다. 퇴근을 준비하는 팀원도 있지만 몇몇 팀원은 연장근무를 준비한다. "정시에 퇴근할 때 보다는 연장근무를 할 때가 더 많아요. 환자의 상태나 그날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거든요. 하지만 팀워크가 좋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바로 병원의 일상인거죠" 박미화 간호사는 귀띔했다.

1 18F-FDG 주사 투여하기 위해 정맥주사 line을 확보하고 있다.
2 매주 목요일, 검사 프로토콜 및 활성화를 위한 핵의학과 컨퍼런스를 실시하고 있다.

Mini Interview

핵의학과 이끌고 있는 최고 전문의_ **이상미** 핵의학과 과장
"방사선 치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국내 몇 안 되는 핵의학 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상미 핵의학과 과장은 "방사선 치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의학과는 핵에너지를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핵에너지를 통해 얻어진 영상을 통해 임상의들에게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절대 빼 놓을 수 없는 분야죠.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해요. 그런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것 또한 저희가 할 일이라 생각해요."
지난해 6월 정식 진료과목으로 핵방사선과가 신설되면서 초대 핵의학과 과장으로 부임하게 된 이상미 교수는 순천향대학 천안병원의 핵의학과를 대전충청지역 뿐 아니라 경기남부지역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저희 핵의학과는 국내 최고의 PET-CT 설비와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암 진단과 치료를 비롯해 많은 영역에서 핵의학과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옥소치료의 최고 전문가_**최학기** 핵의학팀 팀장(방사선사)
"최고의 장비와 팀워크, 우리의 자랑입니다"

핵의학팀의 수장인 이학기 팀장은 핵의학팀의 강점으로 최신 장비와 팀워크를 들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PET-CT 장비는 국내 4개밖에는 없는 최신의 장비입니다. 방사선의 위험성을 낮추고 검사의 정확성은 높인 장비죠. 2mm의 암 병변도 놓치지 않거든요. 큰 자랑 중 하나입니다." 이 팀장은 "동위원소를 사용하고 있는 검사부터 치료까지 모든 부분이 매우 섬세하고 예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런 섬세한 과정은 철저한 팀워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에는 핵의학과 팀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PET-CT 장비로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한 팀원의 가족한테서 암 병변이 발견됐어요. 저희 PET-CT 장비가 아니었으면 자칫 큰 병이 될 수 있었지만 잘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팀장은 "모든 팀원이 보다 나은 검사와 진료를 위해 매주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섹션을 나누어 중요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항상 더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러스트 남동윤

돌발성 난청, '중이 내 주사요법'이 최고

통증 · 부작용 없는 간편 시술

글_ 이종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최근 미국에서 재미있는 연구가 진행됐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천연가스 채굴시설이 몰려있는 시끄러운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조용한 지역을 비교했더니, 조용한 곳에서의 잣나무 묘목이 4배나 더 많이 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11테러 이후 큰 배의 통행량이 줄어든 지역의 바다 밑에서 고래의 배설물을 검사했더니 10년 전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산업소음은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 역시 피해갈 수 없다. 2010년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난청과 어지럼증의 유병률이 40세 이상 성인에서 거의 20%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난청의 경우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어지럼증의 경우에도 만성적으로 재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질환으로 평생을 고통받는 환자들은 병원을 찾아 "수술로 고칠 수 없나요?"하고 질문하곤 한다. 그런데 최근 복잡한 수술 대신 '중이 내 주사요법'이라는 간단한 시술 치료가 등장해 환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돌발성 난청과 메니에르병에 치료 효과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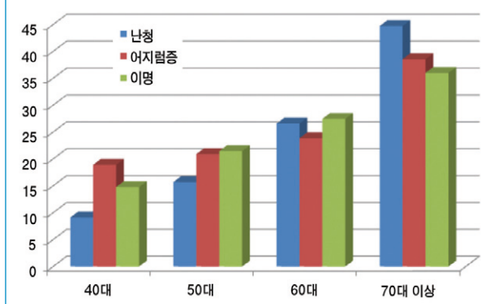
최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비인후과가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 결과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로 실패한 돌발성 난청 환자들에게 중이강 내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이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발성 난청이란 뚜렷한 원인이 없이 발병되는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응급처치가 동반하는 중한 질환이다. 하지만 매우 흔하게 나타나 국내에서 매년 10만명당 10명 이상에게서 발병되고 있다. 기존에는 돌발성 난청 치료로 스테로이드 약물이 이용됐다. 그러나 치료 후 발병 전의 청력을 회복하는 경우는 30%에 불과했다.

또한 어지럼증의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손꼽히는 메니에르병에 있어서도 중이강 내 겐타마이신 주사요법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 메니에르병은 갑작스럽게 내이의 임파액이 많아져 예고 없이 발작적으로 찾아오는 주기적 어지럼증과 난청, 이명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만성적인 병이다. 주요 치료법은 저염식 식사와 함께 이뇨제를 3~6개월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과적 치료가 효과를 보이지 않을 때에는 중이 내 주사요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메니에르병에 있어서는 겐타마이신 중이 내 주사요법이 효과적이며, 특히 겐타마이신 중이 내 주사요법의 경우 어지럼증을 영구적으로 호전시킨다는 연구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중이 내 주사요법, 통증 · 부작용 적고 간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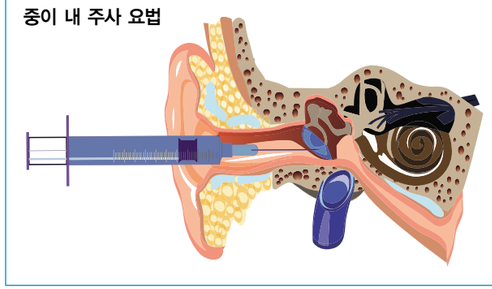
우리의 귀 구조는 외이 · 중이 · 내이로 나누어져있다. 가장 안쪽에 위치한 내이(內耳)는 소리를 감지하는 달팽이관과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전정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달팽이관이 손상을 받게 되면 난청을 유발하고 전정기관이 손상되면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난청 · 어지럼증 · 이명의 연령대별 유병률(%)



2010.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및 질병관리본부

중이 내 주사 요법



중이 내 주사요법은 귀의 가운데 부분인 중이(中耳) 내로 약물을 주입해 막을 통해 내이로 약물을 흡수시켜 난청과 어지럼증을 한 번에 치료하는 방법이다. 우선 환자의 고막을 크림이나 솜을 이용해 마취한 후 환자를 눕히고 고개를 반대쪽으로 45도 돌린다. 이후 1㎖ 주사기와 척추천자용 주사바늘에 0.3~0.4㎖의 주사액을 채운 후 고막 안쪽으로 약물을 주입한다. 주사 후 환자는 15~20분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며 이관을 통해 약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침을 삼키지 말아야 한다. 주사액 성분은 스테로이드와 겐타마이신이다.

중이 내 주사요법의 가장 큰 장점은 통증이 적고 간편히 시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술 후 부작용도 거의 없다. 일부 환자들이 일시적인 어지럼증이나 고막천공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일이다. 특히 돌발성 난청을 가진 당뇨, 위궤양 등의 질환자들에게 전신적 스테로이드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중이 내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레이저 위암 절제술 세계 최초 성공

출혈 없이 수술시간 단축… 내시경수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열어

정리_ 편집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센터장 조주영, 조준형, 복진현)는 레이저를 이용한 내시경 위암 절제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레이저를 이용한 위암 절제술은 절개와 지혈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출혈이 없고 수술 시간도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개 부위 주변 정상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고 최소한의 절제로 암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장점이다.

현재까지의 내시경 절제술은 전류가 흐르는 금속 칼을 이용해 위암을 포함한 위 점막을 도려내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절개와 지혈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길고, 드물게는 수술 후에 도 지연 출혈과 같은 합병증이 생기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지혈이 되지 않거나, 지혈 겸자의 과도한 응고술에 의한 지연 천공으로 외과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조주영 교수는 "현재 내시경 절제술 시에 사용하는 금속칼은 지혈 기능이 적기 때문에 지혈 과정 중 과도하게 조직을 태우는 단점이 있었다"며 "이번에 도입한 레이저는 수술자 측면에서 보호 안경을 착용할 필요가 없고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위암 치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레이저 수술은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영역에서는 널리 보급되어 있다. 이미 상용화된 CO2, YAG, KTP 레이저 등은 지혈 능력은 우수하지만 심부 조직 손상의 위험성이 있어 소화기내시경 분야에서는 감히 시도되지 못했다. 이에 조주영 교수는 최신 레이저 기기를 전격 도입,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세계 최초로 레이저 수술을 소화기내시경 분야에 적용하였다.

도입된 기기는 0.5mm 직경의 가는 파이버를 통해 레이저를 방출하며, 이는 기존의 레이저에 비해 액체 매질에 대한 흡수력이 2.5배나 강력하여 정교한 절제 능력과 강력한 지혈 효과를 보인다.

조교수팀은 2.5cm 크기의 조기위암을 진단받은 74세 환자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내시경 수술로 출혈 등의 합병증 없이 성공적으로 절제한 바 있다.

조주영 교수는 "레이저를 이용한 내시경 조기위암 절제술이 도입됨으로써 향후 소화기내시경 수술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뀔 것이다"고 전망했다. 현재 조교수팀은 지난 8월부터 6명의 조기위암 환자를 레이저 기기를 이용해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창의적인 수술법을 해외 학술지에 게재하여 국내외 유수의 소화기내시경 센터에 소개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순천향대병원 소화기내과 조주영 교수는 조기 위암과 식도암 등 소화기암을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2000년 초에 조기위암의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을 국내에 처음 도입했다. 또한 ESD시술의 보급을 위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산하에 ESD연구회를 조직해 동료 의사들에게 술기와 장점을 전파했다.

특히,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화기관련 학술대회인 소화기병주간행사(DDW – Digestive Disease Week)에서 7년 연속 시청각교육상을 수상했다. 금년에는 1, 2위를 모두 차지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올해는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로부터 조기식도암과 조기위암의 내시경 수술법에 대한 영상교과서 제작 요청과 함께 2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는다. 영상 교과서는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 회원들의 연수강좌와 기타 교육교재로 사용하고, 의대학생들의 교재로도 활용하게 된다.

소아 아토피 · 천식 치료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

박준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부원장

국내 소아 아토피와 천식 치료 분야의 최고 권위자 박준수 부원장은 전문의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으로 대전, 충청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료인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박 부원장을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만났다.

글_ 전진용 사진_ 안성욱

매일 어린 환자들을 대해서일까. 처음 만난 박 부원장의 인상에서 흡사 동심과 같은 것이 느껴졌다.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로 어린 환자를 대하는 박 부원장의 모습은 의사가 아닌 마치 또래 친구와 같은 친근감을 준다.

"어린 환자들을 수십 년간 대하다 보니 이제 어린 환자들의 심리까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힘들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박 부원장은 의과대학 졸업 후 1984년부터 28년간 줄곧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활동해 오면서 소아 천식과 아토피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경험을 쌓아왔다.

"소아 천식과 아토피는 아이들 4~5명에 1명 꼴로 발생하는 매우 보편적인 질환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볼 질병은 더더욱 아닙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박 부원장은 소아 천식과 아토피 등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은 무엇보다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즘은 잘못된 상식으로 오히려 질환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 질환은 완치라는 것이 쉽지 않지만 또한 관리만으로 일반인들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전문의를 믿고 정확한 원인을 구명해 치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아 천식과 아토피의 경우 선천적인 요인도 꽤 작용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후천적인 사회 환경에 의한 발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요즘은 패스트푸드와 같은 음식과 각종 환경오염 등 사회 환경으로 인한 발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있다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박 부원장은 이런 소아 천식과 아토피 등의 올바른 예방법이나 정확한 치료방법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데 주력해 왔다. 대한 소아알레르기 · 호흡기학회 중부지회장으로 3년 넘게 활동해 오고 있으며 대전충청지역의 아토피 · 천식 관련 여러 학회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보건사업 관련 핵심자문위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사회 여러 곳에서 이들 질환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자 강좌를 진행하고 있어요.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부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치료 영역 확대, 교육 강화로 지역사회 공헌

요즘 박 부원장은 소아 천식과 아토피 질환 '환자 관리 시스템'을 더욱 더 체계적으로 재구축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를 제대로 운영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있는 젊은 후배들을 양성하는 일에도 몰두하고 있다.

"소아 천식과 아토피는 관리와 치료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치료영역을 보다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변의 어려운 환경으로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어린 환자들에 대한 관심도 잊지 않았다.

"주변에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많은 어린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칫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얻을 수 있거든요. 주변 여건과 상관없이 환자가 치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회단체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 부원장은 "박태환 선수가 천식 때문에 운동을 시작해 이제는 어린 나이에 국민의 영웅이 된 것처럼 소아 천식이나 아토피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질환"이라고 전했다.

중증천식환자 겨울철 특히 조심해야

글_ 박춘식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67세의 김호식(가명) 씨는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병원을 자주 찾고 있다. 천식 증상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기침 · 가래가 많아지고 숨쉬기 힘든 호흡곤란이 찾아오고 있어 김 씨에게 요즘 가장 두려운 뉴스는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는 예보이다. 이처럼 천식 환자들에게 환절기와 더불어 겨울철은 가장 버티기 힘든 시기다.

천식이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결합해 발병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성 질환이다. 폐 속에 있는 기관지가 매우 예민해지고 좁아져 숨이 차고 기침을 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며, 우선 약물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천식 치료제로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심각한 경우에는 중증천식환자로 분류하는데 전체 천식 환자의 약 10% (약 40만 명 추산) 정도가 이와 같은 중증천식환자이다. 최근 이러한 중증천식환자가 겨울철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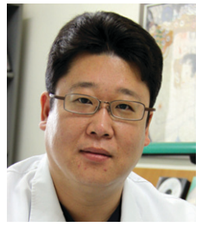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박춘식 교수와 순천향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김성렬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를 해보니 중증천식환자의 경우 겨울철 하루 혹은 이틀 전의 기온이 평상시보다 1℃ 떨어질 때 증세가 평소보다 15%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 중의 이산화황 농도가 1ppb(1ppm의 1,000분의 1) 증가할 때에는 증세 악화가 20% 증가했다. 따라서 온도의 변화가 심하고 석탄 연료를 많이 사용해 이산화황이 크게 증가하는 겨울 환경은 중증천식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국내 기상 전문가들이 올 겨울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 북극해에 바다얼음의 면적이 줄어들어 한반도에 혹한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중증 천식환자 등을 비롯한 천식환자들의 건강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천식환자들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 쉬운 겨울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꼭 외출을 해야 한다면 따뜻한 낮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마스크나 목도리 등으로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외부 공기를 최대한 차단해 줄 수 있는 복장을 하고 입이 아닌 코로 호흡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난 5년(2005~2009년)간 부천병원을 방문한 수도권 거주자 2,298명의 천식환자 중 중증천식환자의 자료 238건을 분석해 진행했으며, SCI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Asthma』 최근호에 게재됐다.

기존에 동물실험이나 역학조사 등을 통해 기온 및 이산화황과 천식 질환 간의 연관성을 알아본 연구들은 있었지만 환자들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추적 분석한 연구 결과는 없었는데, 이번 연구는 겨울철 기온이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밝혀낸 최초의 연구로 인정받고 있다.

추위에 손발 푸르게 변하는 '레이노증후군'



글_ 이재욱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흉부외과 교수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날씨가 추워지면서 여성들의 또 하나의 고민은 손과 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이다. 손과 발의 색깔이 푸르게 변하면서 저리고 아프기 때문에 외출도 꺼려지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기 십상이다. 이런 증상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발생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이를 '레이노(Raynaud)증후군'이라고 한다. 겨울로 접어들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이 질환의 특징과 예방법을 알아본다.

레이노병(Raynaud's disease)은 말초혈관이 수축하여 혈액순환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교감신경계의 과잉반응으로 말초혈관의 비정상적인 수축을 유발함으로써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해 발작적으로 손, 발 등의 말초혈관의 순환장애를 유발하는 병이다.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추위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손가락, 발가락이 창백해지면서 저리고 아프며 이후 보라색으로 변하게 되고 따뜻하게 해주면 빨갛게 변한다.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를 일차성 레이노병이라 하며 대략 70% 정도가 여기에 속한다. 대부분 젊은 여성에게 생기며 양손, 양발가락에 대칭적으로 발생하고 통증이 심하지 않다. 반면 전신성 경화증,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원인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를 이차성이라 하며 일차성 레이노병에 비해 정도가 심해 말초조직의 괴사를 유발하기도 한다.

진단은 차가운 곳에 가면 피부색이 푸른색으로 변하고, 차가운 물에 담갔을 때 통증이 오며, 손이 자주 저림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서 체온과 손발의 온도 차가 2°C 이상일 때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때 레이노병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검사법으로 4~6 °C 냉수에 2분 정도 양손이나 양발을 담군 후 피부온도 측정계나 체열 측정기에 의해 피부온도의 회복과정을 관찰하거나 혈류계측기를 이용해서 관찰하는 한냉부하검사법이 있다. 막힌 혈관의 유무를 검사하는 혈관조영검사와 대부분의 원인질환이 류마티스 질환이므로 혈액검사를 통해 자가항체여부를 확인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치료는 우선적으로 추위로부터 노출을 피하는 것으로 증상이 비교적 가벼우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약물치료를 하는데, 혈관이 막히면 폐쇄 혈관을 넓히거나 새로운 혈관을 이어 주는 이식수술을 한다. 또한 혈관의 수축이 교감신경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레이노병이 심한 경우 혈관에 작용하는 교감신경계를 잘라 혈관 수축을 막는 신경차단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약물에 반응이 없는 중증인 경우 효과를 볼 수 있다.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심리적 안정을 시키는 심리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레이노병을 포함한 수족냉증 환자들의 증상완화를 위한 생활습관으로는 되도록이면 찬 물은 물론이고 찬 것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금연과 금주는 필수로 흡연은 손과 발끝으로 가는 혈액을 더욱 적게 만들며 알코올은 혈관을 이완시켜 열이 소실되고 더 추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나 녹차 등의 음료도 역시 혈관 수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

일러스트 남동윤

"다문화가정 행복은 옹알이 때부터"

글_ 심세훈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이 늘고 다문화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2011년 전체 결혼 건수 중 10.5%가 국제결혼이며, 농촌의 경우엔 40%에 달한다. 또 2012년 4월 1일 기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 역시 5만5989명에 이를 정도니 우리사회에서 이제 다문화가정은 작지 않은 사회구성원이다.

그들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고 안착하려면 여러 문제들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의 언어교육문제가 시급한 과제다. 유아에게 처음 말을 가르치는 것은 엄마와 아이간 애착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그 때 생긴 애착은 인격 형성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언어도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필리핀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독일어, 한국어 등 정말 다양하다.

필자가 최근 유학을 다녀온 스탠포드 대학병원은 실리콘벨리에 위치해 세계에서 IT 인력들이 몰려오는 특수 지역으로 각기 모국어가 있는 많은 이민들로 2중 언어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그곳은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많아 스탠포드 대학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부설 언어치료실은 영어와 스페인어에 능숙한 언어치료사가 있다. 집은 스페인어 환경이고, 사회(유치원 또는 학교)는 영어 환경인 언어지연 아동들을 치료하고 있다.

그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어떻게 말을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

우리나라의 많은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자녀에게 한국어와 외국어를 모두 사용하면 말을 배우는데 지장이 생길까 걱정해 엄마도 서툰 한국어로 말을 가르치려한다. 그러다보니 아이에게 말 거는 횟수가 적어지고, 부정확한 의사소통으로 감정 교류까지 없어지는 경우도 생긴다.

아이가 두 가지 언어에 노출된다고 언어발달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아이들은 여러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언어지연 진단을 받은 아이라도 두 가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이가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만큼 외국어도 습득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즉 아이가 언어지연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의 문제지 두 가지 언어에 노출돼서가 아니다.

그럼 왜 아이에게 두 가지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

아빠와 엄마의 다른 모국어를 모두 할 수 있으면 많은 장점이 있다. 첫째, 아이가 엄마의 모국어로 대화하면 아이와 엄마는 정서적으로 더욱 친밀해지고, 애착형성과 정체성형성에 도움이 된다. 또한 2개 국어 이상을 할 수 있으면 차후 사회적?경제적으로 유리해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일찍이 2개 국어를 한다는 것은 아빠나라와 엄마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더 잘 이해해 두 나라에서 일과 생활을 더 잘 할 수 있게 한다. 외국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이가 조기에 엄마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오히려 사회성을 형성하는 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엄마는 자신의 모국어로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 좋다. 서툰 한국어보다 모국어는 더 정확한 언어 모델이 아이 뇌의 언어중추를 더 잘 자극시킬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아이가 자신의 뇌에 하나의 언어(엄마의 모국어)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면 다른 언어(한국어)도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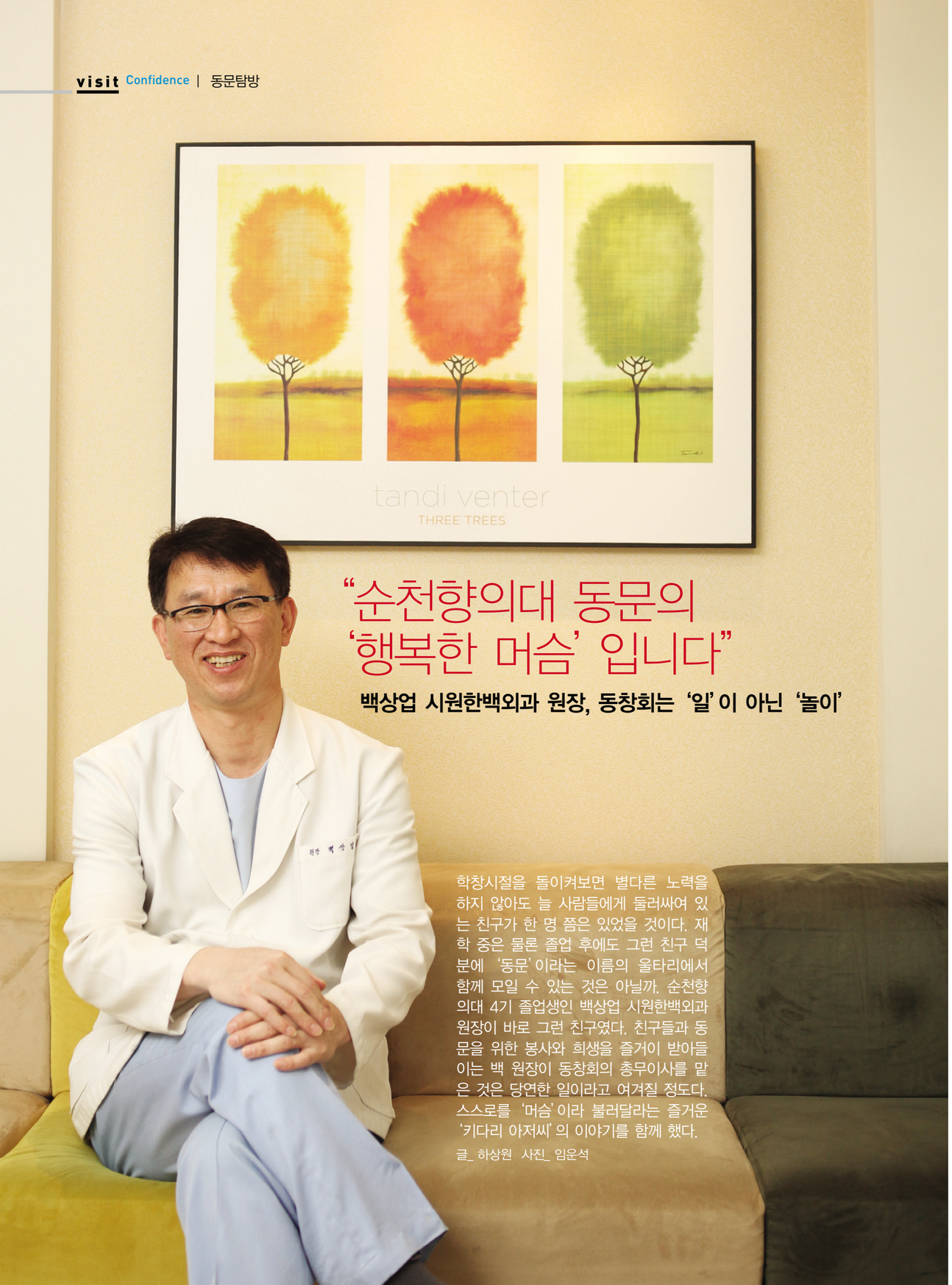
'코드전환' 전, 엄마는 모국어로 아이와 의사소통해야

엄마는 자신의 모국어로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 좋다. 서툰 한국어보다 모국어는 더 정확한 언어 모델이 아이 뇌의 언어중추를 더 잘 자극시킬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아이가 자신의 뇌에 하나의 언어(엄마의 모국어)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면 다른 언어(한국어)도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다고 한다. 자녀에게 무작정 외국어 사용을 제한하면 오히려 엄마와 의사소통 기회만 잃게 되므로 여러 상황에서 엄마의 모국어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아빠는 한국어로, 엄마는 모국어로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거나, 재미있는 이야기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많은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면 어느새 아이는 2개 국어를 배우게 된다. 세계 어느 언어든 언어습득은 듣는 시간과 사용하는 시간에 좌우되어 언어발달 단계는 세계 모든 언어가 똑같이 나타난다. 옹알이나 말이 처음 터지는 것은 어느 나라 말을 하든 같다. 한국말이 아직 터지지 않았다 해도 엄마의 모국어가 나이에 맞게 발달하고 있다면 아이의 언어발달에는 문제가 없다. 한국어와 외국어에 함께 노출되는 아이는 처음에는 한 문장에 둘을 섞어 쓰지만, 나이가 들면 적절히 상대방의 언어에 맞추어 그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코드 전환'이라 하는데 일반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 한국어만 쓰는 할머니와는 한국어로, 외국어만 쓰는 사촌과는 외국어로 대화를 하게 된다.

다문화가정 아이에게 말 가르치는 방법

1. 한국어가 서툰 엄마는 자신 있게 자신의 모국어로 많은 대화를 나누어 자녀와 교감을 갖고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
2. 엄마가 모국어로 말을 가르쳐 아이 뇌의 언어중추를 자극하면 아빠가 한국어로 말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모국어로 얘기할 때 아빠는 한국어로 많은 대화(놀이)를 나누는 것이 좋다.
3. 자녀가 2개 국어를 함께 배운다면 아이는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고, 문화적 차이를 더 잘 이해해 커서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큰 기반이 될 수 있다.
4. 말이 늦게 트인다고 억지로 외국어 사용을 금하면 오히려 엄마와 의사소통의 기회를 잃게 되므로 부모가 각자 언어로 더 많이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5. 엄마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 부부끼리 양육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교류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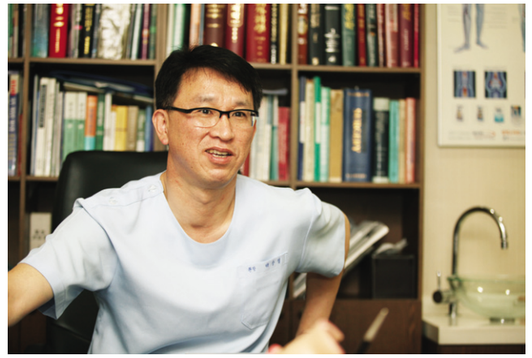


"순천향의대 동문의 '행복한 머슴' 입니다"

백상업 시원한백외과 원장, 동창회는 '일'이 아닌 '놀이'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친구가 한 명 쯤은 있었을 것이다. 재학 중은 물론 졸업 후에도 그런 친구 덕분에 '동문'이라는 이름의 울타리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순천향의대 4기 졸업생인 백상업 시원한백외과 원장이 바로 그런 친구였다. 친구들과 동문을 위한 봉사와 희생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백 원장이 동창회의 총무이사를 맡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질 정도다. 스스로를 '머슴'이라 불러달라는 즐거운 '키다리 아저씨'의 이야기를 함께 했다.

글_ 하상원 사진_ 임운석



총무이사? 난 머슴이요!

화창한 가을의 한 복판에서 만난 백상업 시원한백외과 원장은 190센티미터 가까운 큰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진 '이웃집 형' 같은 사람이었다. 점심도 거른 채 수술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마자 숨 쉴 틈 없이 울리는 휴대전화를 받으며 얼마 뒤 있을 동문모임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기자에게 백 원장은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 건네며 10여 분 간의 통화를 마치고 동문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운 후에야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을 수 있었다.

"이거 죄송합니다. 며칠 뒤에 자선기금 마련 모임이 있는데 제가 실무를 맡고 있다 보니 이렇게 정신이 없네요. 이건 뭐 완전히 머슴이에요, 머슴(웃음)."

이번에 개최되는 행사는 모교인 순천향의대와 후학들을 위한 기금마련 친목 골프대회로 총 100여명이 넘는 동문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오며 다소 큰 규모로 기획됐다. 때문에 조 편성부터 '카 풀(car pool)' 지역 선정과 상품 준비 등 백 원장의 하루는 더 없이 바쁘게 흘러가고 있다. 인천에 시원한백외과를 개업한 지 이제 6년.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매일 환자와 부대끼는 와중에 이렇듯 동창회 일까지 함께 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을까.

백 원장은 고개를 저으며 "지금 역임하는 동창회 총무이사는 일이 아니다"고 말한 후 "이걸 핑계로 친구들 목소리도 한 번 더 듣고 문자라도 한 통 주고받으니 오히려 고마울 뿐이다"며 예의 서글서글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학교앞 '대성집' 은박지 삼겹살에 소주면 '와따'

최근 의대생들이 외과를 점차 외면하는 추세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백 원장은 "외과야말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과"라고 힘주어 말한다. 중증 외상 환자를 맡는 것도, 위독한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것도 오롯이 외과의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외과가 최고 인기 학과였어요. 경쟁률이 2:1, 3:1은 예사였죠. '의사'라는 직업의 가치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기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었죠. 하지만 요즘은 후배들이 특정과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외과는 의대 중에서도 '특수한' 학과로 유명하다. 특성상 인체를 직접 목도하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신체적인 괴로움도 여럿 동반하는 까닭이다.

백 원장 역시 처음에는 피 냄새와 해부 실습 등을 거치며 오바이트를 하는 것은 예사였고 며칠씩 밥을 먹지 못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학창시절 백 원장의 '지정 좌석'은 교단 왼쪽 세 번째 좌측 자리인 출입구 바로 옆이었다. 학과 수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인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했다는 웃지 못 할 사연이 있었다.

심각하게 학과 변경을 생각하던 와중 백 원장을 구원한 것은 학교 근처 '대성집'의 은박지 삼겹살과 소주 · 막걸리였다. 힘든 실습과 수업을 마치고 나면 으레 선배와 동기들과 함께 대성집을 찾아 삼겹살에 소주 한 잔으로 시름을 털어버렸던 것. 백 원장은 "그나마 삼겹살을 먹을 수 있을 때는 누군가가 집에서 용돈을 부쳐준 날 뿐"이라고 말하며 "평소에는 집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수퍼에서 소주와 50원짜리 '아폴로'를 사서 신창저수지에서 마시며 궁상을 떨었다"고 고백하며 유쾌하게 웃어보였다.

후학들을 위한 '즐거운 환원'

백 원장은 "사실 아직 순천향의대 동문회관이 없다"고 말하며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번 동창회 임원들의 임기 중에 동문회관 설립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과 연구지원금 등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간의 동창회가 단순한 친목을 위한 만남의 장이었다면 향후 순천향의대 동문회는 후배와 모교를 위한 환원의 장으로 펼쳐졌으면 한다는 뜻을 함께 전했다.

순천향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고 현재의 동문들과 친구들이 있다고 말하는 백 원장. 큰 키에 굵직한 손마디와는 달리 세심하고 푸근한 그의 마음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할 순천향의대 동문들의 밝은 내일을 확신할 수 있었다. 순천향의대 동문회의 '키다리 아저씨', 백상업 총무이사가 흘린 땀만큼 동문들의 유대감도 더욱 견고해 질 것이다.

몸에 좋은 사과, 저녁에 먹으면 왜 안 될까

글_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약전문기자

10월 24일은 애플데이(Apple Day)다. 사과(謝過)의 마음을 사과(沙果)에 담는 날이다. 24일로 정한 것은 둘(2)이 서로 사(4)과한다는 의미다.

"하루에 사과 한 개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는 영국 속담이 있다. 서구인들은 사과가 익는 계절이면 사람이 건강해진다고 믿었다.

인류는 5000년 전부터 사과를 재배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약성서에도 등장한다. 선악과인 '사과를 먹지 말라'는 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과를 몰래 먹다 들킨 아담의 목구멍에 그만 사과가 걸렸다는 대목이다. 그래서 남성의 목 중간쯤에 연골이 약간 돌출된 부위를 '아담의 애플'이라고 한다.

아담의 사과 외에 뉴턴의 사과, 빌헬름 텔의 사과 이야기도 유명하다. 아담의 사과는 종교, 뉴턴의 사과는 과학, 빌헬름 텔의 사과는 정치를 낳았다는 말도 있다.

사과는 가을철 과일이다. 조생종은 8월 말부터 출하되기 시작하며 대표 품종인 후지 사과는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된다. 사과(후지 기준)는 100g당 83.6g인 수분과 15.8g인 탄수화물이 주성분이다. 열량은 100g당 44~57㎉로 부담스럽지 않다.

영양상의 장점은 칼륨 · 유기산 · 펙틴 · 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칼륨은 혈압을 올리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미네랄이다. 고혈압 환자에게 사과를 추천하는 것은 이래서다. 고혈압 환자가 많은 일본 동북지방에서 유일하게 고혈압 발생률이 낮은 곳이 최대 사과 산지인 아오모리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능금산(사과산) · 구연산 · 주석산 등 유기산은 피로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 식이섬유의 일종인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춰준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동맥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며 암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사과하면 비타민 C를 연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일반의 예상보다는 적게 들어 있다. 사과 100g당 비타민C 함량은 4~10㎎으로 같은 무게의 오렌지(43㎎) · 레몬(70㎎) · 딸기(71㎎)보다 훨씬 적다. 사과는 단맛과 신맛이 섞여 있다. 단맛은 당분, 신맛은 유기산의 맛이다. 사과는 익을수록 녹말(전분)이 당과 알코올로 바뀌면서 당도가 높아진다. 실제 당도를 재보면 배보다 높다.

사과는 아침에 먹으면 '금', 점심엔 '은', 저녁엔 '독'이라는 말이 있다. 저녁에 먹으면 사과산이 위의 산도(酸度)를 높여 속을 쓰리게 하고 식이섬유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사과의 당질이 그대로 축적돼 체중이 불어날 수도 있다.

아침에 먹는 사과가 이로운 것은 오전에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데 사과를 먹으면 포도당이 공급돼 머리가 잘 돌기 때문이다. 사과는 약간 타원형인 것이 상품이다. 색깔이 고르면서 만졌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을 고른다.

식이섬유와 항산화성분인 안토시아닌 등 사과의 웰빙 성분은 껍질에 대부분 몰려 있으므로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과에 든 식물의 노화호르몬인 에틸렌이 주변 과일 · 채소의 숙성을 촉진시켜 금방 무르게 하고 시들게 해서다.

'천만배우' 류승룡의 재발견

유쾌 · 상쾌 · 통쾌…대종상 빛낸 수상소감 등 매력 물씬

'내 아내의 모든 것'의 카사노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허균 등으로 영화계 블루칩으로 급부상한 배우 류승룡. 과거 묵직한 역할들만 소화할 때 미처 느낄 수 없었던 그의 매력은 앞서 언급한 2편의 영화를 통해 폭발했다. 사람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류승룡과 조우했다.

글_ 조영곤 기자

천만배우! 이른바 요즘 가장 핫 한 배우 가운데 한명인 류승룡은 '내 아내의 모든 것'을 통해 다소 느끼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의 카사노바로 재발견의 서막을 알렸다.

이후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이병헌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진지함 속에서 우러나오는 절제된 코미디로 '배우 류승룡'을 각인시켰다. "평소 소신대로 역할에 임한 것이 관객과 평단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재밌게 일하자'가 철학이죠. 현장 스태프, 배우, 그리고 감독과 최대한 즐겁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역할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지 않았나 싶네요."

천만관객을 돌파한 '광해, 왕이 된 남자'를 통해 그는 절제의 미를 깨닫게 됐단다. 도승지 허균의 카리스마를 유지하면서도 적당한 수위의 코믹 요소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과유불급'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류승룡은 다소 늦은 나이에 영화판에 데뷔했다. 그는 퍼포먼스 난타 1기생으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보냈다. 이후 장진 감독과의 인연으로 2004년 '아는 여자'로 영화판에 입성했다. 당시 그의 나이 35세. "난타를 5년 동안 하면서 소기의 목적은 이뤘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관객, 수많은 도시, 세계를 돌아다니며 1대1 가내수공업으로 난타를 많이 알렸기에 지금 전 국민이 난타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연기는 목적의식이 중요

류승룡은 다재다능하다. 현재 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미래의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다. 그는 늘 후학들에게 목적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연기를 왜 하려고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학생들에게 목적성을 분명히 하라고 항상 말하죠. 연기가 좋아서 연기를 배우는 것과 화려한 것만을 보고 연기를 배우는 것은 천지차이잖아요." 이쯤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종상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비난에 허덕인 대종상을 빛낸 유일한 인물이 바로 류승룡이기 때문이다.

류승룡은 대종상에서 '광해, 왕이된 남자'를 통해 남우조연상 트로피를 받았다. '내 아내의 모든 것'과 같은 부문에 동시 이름을 올렸지만 그에게 수상의 영광을 준 작품은 '광해, 왕이 된 남자'였다. 류승룡이 수상하기 직전까지 '광해, 왕이 된 남자'가 받은 상은 이미 5관왕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이에 류승룡은 "나보다 더 기뻐할 가족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 광해로 상을 받았지만 '내 아내의 모든 것'으로 수상소감을 하겠다. '광해'가 너무 상을 많이 받았다"며 '내 아내의 모든 것'까지 챙기며 센스 넘치는 수상소감으로 영화인의 면모를 확실히 드러냈다.

이어 "10년 전만 해도 40대 이상 배우들이 영화에서 비중 있는 역을 못했는데 선구자 역할을 해준 안성기 최민식 선배님 너무 감사하다"며 "또 옛날에는 꽃미남의 전유물이었는데 나한테도 기회가 오도록 만들어 준 송강호 설경구 김윤석 선배님께도 고맙다"는 담담히 어투로 웃음을 자아냈다. 또 "여성보다 섬세했던 꼼꼼함으로 소통해 준 민규동 감독님과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임수정, 상대 배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이선균 씨도 잊지 못할 것이다"며 "할당량이 있는데 다 소비하고도 나의 현란한 손놀림 때문에 고생한 이름 모를 소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해 현장을 초토화 시켰다.

이렇듯 류승룡은 늘 배려하고, 섬세하게 터치하는 매력 만점의 배우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도 그의 인간적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항상 기대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또 기대하게 되고, 또 만족하게 되고, 또 신뢰하게 되고… 설사 기대를 했는데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응원해줄 수 있는 배우. 완벽하진 않지만 시행착오도 견뎌낼 수 있는 배우.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안심하고 먹자...집에서 끓인

아빠표 갈비탕

글_ 황인철 구미병원 산부인과 교수

recipe

재료 : 갈비 2kg, 대파 3뿌리. 양파 1개. 조선간장 3T, 다진마늘 2T, 당면, 소금, 후추, 계란지단

만드는 방법 :

1. 갈비를 물에 30분 이상 담가 놓고 핏물을 뺀다.
2. 핏물을 뺀 갈비를 대파와 양파를 넣고 끓인다.
3. 물이 끓으면 조선간장과 다진 마늘을 넣고 중불에 1시간 이상 끓인다.
4. 중간 중간 불순물은 제거하고 소금으로 마지막 간을 한다.
5. 그릇에 밥과 당면을 담고 갈비탕 국물을 붓고 먹는다.

요즘 TV 채널마다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바로 먹거리에 대한 탐사 보도이다. 평소 우리가 즐겨 찾고 자주 먹었던 음식과 먹거리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공개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내용을 볼 때면 '밖에서 먹을 것은 물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음식 장사가 돈 벌이가 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꼭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음식 먹는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는 일종의 직업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신선한 재료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그 정도는 못 맞추더라도 못 먹을 식재료로 만드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쌀쌀해진 날씨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뜨끈한 국물! 갈비탕 한 그릇~! 집에서 하기 쉽지 않은 요리니 밖에서 자주 먹는 음식인데, TV에 보도되는 갈비탕에 대한 허와 실을 보고 있다가 점차 충격적인 내용에 놀랐다. 갈비탕의 갈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선한 생고기가 아닌 통조림 형태로 수입된다니... 그 통조림의 고기는 그 종류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철저히 관리하는 생고기와는 달리 수입 구조도 분명하지 않고 위생상태 마저 장담을 못한다니 얼마 전 맛있게 먹었던 음식의 상상은 날아가고 허탈감마저 든다. 특히 아이에게 고기 한 점 더 먹이려고 내 그릇에 있는 고기까지 덜어준 부모의 마음은 오죽이나 할까? 식당에서 맛있게 갈비탕을 먹었던 아이의 미소가 계속 마음에 걸려 정육점에서 갈비를 한 대를 샀다. 아이들은 갑자기 끓이는 갈비탕에 무슨 일인가 하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지만 차마 갈비탕에 얽힌 뉴스를 이야기 하지 못했다. 양심 없는 어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그리 힘든지...

가장 행복하고 깨끗한 음식은 바로 우리 집 부엌에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말아야겠다.

아기 받는 남자의 TIP

대파와 마늘을 넣고 푹 끓인 시원한 아빠표 안심 갈비탕입니다.
마지막에 간을 소금으로 꼭 하시고 드실 때 한 번 더 끓이시면 더욱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겨레의 역사가 숨 쉰다,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길'

천안을 대표하는 곳으로 독립기념관을 빼놓을 수 없다. 이곳은 아름다운 단풍나무를 벗 삼아 걸을 수 있어 요즘 같은 가을에는 최적의 걷기코스이다. 특히 올해는 일교차가 심한 가을 날씨로 인해 단풍이 더욱 예쁘게 물든다고 하니 오늘의 코스가 더욱 기대된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산하 4개 병원에 인접한 걷기 좋은 길 마지막 편으로 독립기념관의 '단풍나무 숲길'을 소개한다.

글 · 사진_ 김진국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장내과 교수

겨레의 희망과 통일의 염원을 담은 길

가을비 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를 뿌리던 10월 하순의 어느 주말. 걷기 일정을 하루 미루고 다음날 아침, 창문 너머 들리던 빗소리가 멈춘 것에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쉰다. 비 온 다음날에는 풍경이 더욱 선명해져 걷기에도 좋고 사진 찍는데도 그만이다. 개장시간은 오전 9시 30분이지만 주말 아침인 만큼 교통 혼잡과 인파를 고려해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재촉한다. 목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주변의 풍광에서 이미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진다. 노란 은행나무들의 환영을 받으며 아침 일찍 주차장에 도착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그 위를 날아오를 듯이 우뚝 솟은 겨레의 탑이 저 멀리 보이는 겨레의 집을 배경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통일염원의 동산으로 향하는 계단, 어제 내린 비로 바닥을 구르는 낙엽들이 가을의 운치를 더한다.

통일염원의 동산은 가운데 서 있는 통일의 종을 중심으로 세 쌍의 원뿔형 무지개 모양의 통일염원탑이 둘러싸고 있는 인상적인 조형물이다. 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벽돌담에는 국민들의 통일 염원을 벽돌에 새겨 넣었는데 문구 하나하나가 매우 인상적이다. '조국통일 민족통일' '우리 모두 하나되어' '보고 싶은 내 고향' '아! 가고 싶다 사랑하는 내 고향' 등 많은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깊은 열망이 느껴진다. 정문으로 방향을 바꿔 백련못을 지나 겨레의 집 앞에 태극기 한마당에 서 본다. 가을바람에 펄럭이는 수많은 태극기들의 모습이 장관이다. 나도 모르게 국기에 대한 맹세가 떠오른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도 느낀다. 벽천분수에 이르니 수면 위로 아름다운 가을 경치를 머금은 호수가 보인다. 물 위의 그림을 사진에 담고 조선총독부 철거부재 전시공원으로 향한다.

푸른 가을 하늘에 수놓은 오색 단풍

조선총독부 철거부재 전시공원은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회복하기 위해 철거한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자재로 조성한 공원이다. 공원 중심부에 원형으로 땅을 파서 구 서울시청 첨탑 철거물을 설치했는데 이는 일제의 잔재를 지하에 청산하고 극복한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 이윽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단풍나무 숲길에 들어선다. 단풍나무 숲길은 흑성산 일원의 수려한 자연 수림을 최대한 활용하여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길로 총 3,164m의 길 주변에 단풍나무 1,127 그루를 심어 1996년에 완공한 길이다. 시작점의 울긋불긋 단풍나무들이 화려한 자태를 서로 뽐내기라도 하듯 푸른 가을하늘을 배경으로 일렬로 늘어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반긴다.

아직 물들지 않은 녹색의 나무들부터 붉은색이 아닌 노란색의 옷을 입은 나무들까지, 같은 붉은색이라도 검붉은 벽돌색에서부터 붉은 피를 상기시키는 선홍색까지, 말 그대로 오색 단풍 옷을 곱게 차려 입었다. 길을 걷다 보니 단풍잎으로 멋지게 장식한 세발자전거를 몰고 아이가 열심히 달려간다. 길가에 앉아 떡을 나눠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느라 정신없는 아가씨들까지 모두들 즐거워 보인다. 즐거운 마음으로 걷는 2시간 여정이 끝나자 종점이 보인다. SCH

TIP 단풍나무 숲길은 잘 정비된 아스팔트길로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길이다. 등산을 좋아한다면 흑성산 정상 코스도 가볼만 하다. 유관순 열사의 3.1 독립만세 운동으로 유명한 '아우내 장터' 가 있는 병천이 10분 거리다. 이곳에서 지역 특산 음식인 병천순대를 맛볼 수 있다.

좌측에서 세 번째가 필자 이성진 교수.

"의사들의 합창이 세상을 밝게 합니다"

순천향의대 합창동아리 '하모니' 30주년 기념 공연 성황리에 끝나

지난 2012년 9월 15일 토요일 저녁 6시, 순천향의대 합창동아리 하모니 30주년 기념 연주회가 압구정동 광림교회 부설 장천 아트홀에서 열렸다. 순천향의료원 서교일 이사장님 내외분과 30년 전 초대 동아리 지도교수였던 한성현 교수님, 그리고 2대 동아리 지도교수였던 김창진 교수님을 비롯하여 300명 이상의 관객들이 자리를 잡았다.

글_이성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안과 교수

하모니는 순천향의대 6회였던 신입생 최병수, 박제상이 소수씨족 연합회(?) 소속이던 기신영, 탁민성, 추원석과 함께 만든 남성 중창단으로 시작했다. 닦달 최병수의 열정으로 자투리시간을 모두 연습에 쏟아 부었고, 드디어 1983년 당시 온양읍내의 모아 다방에서 첫 연주회가 이루어졌다.

다음 해 단 두 명의 신입생이 지원을 했고, 하모니는 위기를 맞았다. 간신히 두 번째 연주회를 했던 이 동아리는 세 번째 해에서 동아리의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고등학교에서 중창단을 했거나 성가대 활동을 활발히 했던 신입생 8명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때 한성현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모셨다. 신바람 난 닦달 최병수의 열정 덕분에 연주를 앞두고 매일 천안병원에서 밤 2시까지 연습하고 신창으로 돌아가던 힘든 시절이 있었다. 세 번째 연주회는 온양제일교회에서 있었는데, 겨울노래와 정통 남성 중창노래를 불렀고, 아직도 불멸의 레퍼토리로 전해지고 있다. 관중들이 교회를 꽉 채우고도 모자라서 교회 창문 바깥으로 공연을 구경했던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열정적인 공연을 했던 당시 초기 선배들은 이런 감동을 후배들에게도 꼭 경험시켜주고 싶었다.

다음 해부터 하모니는 신입생들이 가입하고 싶은 인기 동아리가 되었으며, 많은 후배들과 함께 한 네 번째 연주회는 천안시민회관에서 이루어졌다. 이 후로 하모니는 선배들의 전통에 따라 해마다 정기 연주회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할애 하였고, 선배 집에서 합숙을 하며 연습을 했다. 연주회가 끝나면 그 동안의 고생은 오히려 끈끈한 정이 되어 어떤 동아리보다 친근한 선후배가 되었다.

한성현 교수님은 하모니를 가끔 집으로 초청하셨다.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와 노래의 꽃을 피웠다. 그 때 빠끔히 얼굴을 내밀던 선생님의 초등학생 아들은 지금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재활의학과 교수가 되었다. 선생님은 학생들과 같이 엠티도 가셨고, 어려운 하모니 학생에게 장학금도 주셨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KOICA와 함께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나라에 의료지원을 제도를 정착시키는 사업을 하고 계신다. 이번에 하모니는 교수님께 공로패를 드렸다. 2대 지도교수인 김창진 교수님도 하모니와 좋은 추억을 남겼다. 연주회 때마다 학생들을 챙겨주셨는데, 이번에 교수님께는 감사패를 드렸다.

이번 공연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정말 감동의 도가니였다. 복장을 맞추어 입고 화음을 맞추어 노래하는 의대생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 같았다. 30년에 걸친 역사의 현장에는 하모니 출신의 선후배들과 그 가족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옛날 자신의 젊은 시절 하모니의 기억 속에 빠져들어 눈시울을 붉혔다. 1부 합창, 2부 남성중창, 3부 여성 중창을 이어가는 동안 어떻게 의대생들이 시간을 내어 이렇게 어려운 곡들을 아름답게 부를 수 있는지 놀라웠다. 이들은 여름방학을 포함하여 무려 5주를 밤낮으로 합숙하며 준비했단다.

4부 공연 전 이 연주회를 기획한 1기 박제상 원장과 3기 이성진 교수의 색소포 연주가 있었다. 이성진 교수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안과 과장이며 현재 하모니 지도교수인데 순천향대학에서 유일한 동아리 출신 지도교수이다. 그리고 이 연주회의 총감독인 1기 탁민성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성형외과 과장이 옛 지도교수님께 공로패와 감사패를 증정했다.

4부는 OB들의 공연이었다. OB 공연은 2년 전부터 기획을 했지만 너무 바쁜 관계로 천안과 서울을 오가며 딱 두 번 연습했을 뿐이다. 정지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마취과 교수의 지휘 하에 2-30년 만에 처음 노래 부르는 선배들. 1기부터 본과 4학년 여학생까지 섞여있는 그룹에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베테랑의 솜씨는 발휘되었다. 2-30년 전 수 백 번을 부르던 그 노래가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화음이 되는 순간이다. 불멸의 레파토리인 '사랑의 바람', '하모니', '글리 클럽', 그리고 1기 추원석, 2기 김재영, 3기 최원림, 그리고 7기 후배가 중간에 독창한 '여자보다 귀한 것은 없네'는 관객을 열광시켰다. 어떤 관객은 혹시 음대생이 없었냐고 물었다.

5부는 뮤지컬 곡을 노래했다. 재미있는 복장과 몸짓은 유명한 노래를 더욱 친근하게 만들었다. 여운이 가시기 전에 재학생과 졸업생 하모니는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서 사랑의 바람 노래를 불렀다.

한 번 합창을 해 본 사람만이 안다. 다른 사람과 소리를 합쳐서 화음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그러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들이 내 목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 공간을 울리는 일만큼 세상에서 감동적인 것은 없음을. 의대생 시절에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더욱이 그 시간을 쪼개서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임을. 오로지 공부만 하는 장학생이 있지만 연주회를 하는 장학생도 있다. 이들 중 많은 선배들이 이미 교수가 되어 순천향대학병원 뿐 아니라 다른 대학병원을 이끌고 있다. 또한 많은 하모니 출신 의사들이 현재 정감이 넘치는 유명한 의원의 원장으로 있다. 전공의 지원자 중에 하모니 출신이 있다면 적어도 이들은 어려운 시간을 못 버티거나 다른 사람들과 불화를 가짐으로 의국에 나쁜 영향을 줄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려운 병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즐거운 인생의 추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은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같이 하는 합창은 함께하는 즐거운 인생이다. 합창을 해 본 의사를 찾아오면 환자도 즐거워진다. 이런 30년 된 동아리가 있는 것은 순천향대학교의 기쁨이며 자랑이다. 하모니 30주년 기념 공연은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런 의사들이 바로 순천향에서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는 의미이다. SCH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블랙 아이보리'

글_ 하상원

"서양 사람들은 커피를 우리나라에서 숭늉 마시듯 마신다." 1895년 조선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었던 유길준이 펴낸 '서유견문'에 나오는 이 구절은 한국인이 커피에 대해 남긴 첫 번째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커피가 처음 들어온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략 이때를 전후한 1890년대로 추정된다. 당시엔 한자음을 따 '가비'라 불렀고, 검은색과 쓴맛이 한약과 비슷하다 해서 '양탕국(서양의 탕국)'이라 하기도 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숭늉 마시듯 대한민국이 온통 커피 전성시대이다. 그렇다면 제일 비싼 커피는 무엇일까. 바로 '블랙 아이보리' 커피다.

지금까지는 사향 고양이(Civet · 정확한 이름은 말레이 팜 시벳)가 커피나무 열매를 먹고 배설한 커피콩으로 만드는 루왁커피 였다. 한마디로 '고양이 똥 커피'다. 하지만 '고작' 배설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은은한 향기 때문에 1%를 위한 커피로 불리며 비싼 몸값을 자랑한다. 원두 거래가격이 현지에서 kg당 500~600달러로, 한 잔당 30달러(약 3만3000원)나 한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커피숍에선 한 잔에 5만원(원두는 150g 30만원)에 팔리고 있다.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 167잔, 5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도 10잔을 살 수 있는 비싼 가격이지만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다.

그런데 그간 고가(高價)로 군림해왔던 루왁커피도 이 커피 앞에선 명함 내밀기 어렵게 생겼다. 루왁커피보다 거의 두 배나 비싼 커피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CNN방송의 자회사 여행전문 보도매체 CNNGo는 "사향 고양이 똥 커피를 누른 커피의 제왕이 탄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며 "태국에서 등장한 코끼리 똥 커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 등극했다"고 전했다. 태국 아난타라 호텔을 중심으로 공급되는 이 커피는 코끼리 배설물에서 커피 생두를 채집해 만든 커피다. 호텔 측의 설명에 따르면 "코끼리가 커피 생두를 소화시키면서 생성되는 효소를 통해 커피 속 단백질을 파괴하는데, 커피의 쓴맛을 좌우하는 단백질이 파괴됨으로써 커피가 한층 더 부드러워진다"고 밝혔다. 통상 '블랙 아이보리'라고 불리는 이 커피 원두는 현재 현지에서 kg당 11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소매가격으로 따지면 한 잔당 거의 10만원에 달해 사향 고양이 똥 커피(루왁커피)의 두 배 정도가 된다. 코끼리 조련사들은 해발 고도 1500m 천혜의 자연에서 자라난 태국 아라비카 원두를 먹은 코끼리의 배설물을 수거해 그 속에서 커피 생두를 일일이 손으로 골라낸다. 그 후 건조과정을 거쳐 '블랙 아이보리'가 탄생한다. SCH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진정한 내적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존 맥스웰 박사가 전하는 15가지 비밀코드

글_ 하상원

오랜 시간 동안 시대의 아픔을 대표하던 단어는 '청춘'이었다. 방향을 잃고 흔들리던 사람들이 위안과 공감으로 잠시 힘을 얻었지만 그것이 결코 삶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른'이라는 말이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른'이란, 단순히 시간이 흘러 몸이 자라는 '육체적 성숙'을 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그는 '내면의 성장'을 한 사람을 뜻한다. 힘들고 고달플 때 잠시 주저앉아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금 일어나 나아가도록 만드는 힘,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은 이 힘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라고 말한다.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로 칭송받는 존 맥스웰이 지난 30년간 500만 명이 넘는 리더들을 교육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신작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원제 : The 15 Invaluable Laws of Growth) 를 집필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을 깨우는 15가지 방법을 전달한다. 이 책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을 깨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은 참으로 큰 위안이 된다. 그러나 그 다음은? 위안으로 마음을 다독였다면 이제 다시 일어설 때이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세상에서 원하든 원치 않던 성장은 삶의 필수조건이고, 그 성장을 위해서는 특별한 15가지의 법칙이 필요하다고 존 맥스웰은 말한다.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원리를 제시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기존의 상식을 비판하고 가야할 목적지에 이르는 기본 원리를 알려준다. 둘째,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좋은 삶은 습관으로 구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 절차 등이 이 책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셋째, 이미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성공한 수많은 사례를 통해 내용을 검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라는 대책 없는 미래 제시가 아니가 이미 500만 명의 리더를 통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확신과 신뢰를 심어준다.
'지금까지의 내가 아닌, 어제까지와는 다른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살아 왔다면 존 맥스웰이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를 통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그 질문의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하면 된다. 평범하고 나른한 일상에서 벗어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는 더 큰 나를 가슴속에서 꺼내기 위해 존 맥스웰이 말하는 15가지 법칙을 사용해보자.

교보문고 10월 베스트 10

1.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김난도 | 오우아
2.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스님 | 쌤앤파커스
3.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존 맥스웰 | '비즈니스북스
4. **빅 픽처** 더글라스 | 케네디밝은세상
5. **머니 힐링** 조성목 | '행복에너지
6.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이병률 | 달
7.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공지영 | '폴라북스
8.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 공감
9. **총, 균, 쇠** 제레드 다이아몬드 | 문학사상사
10. **템테이션** 더글라스 케네디 | 밝은세상

연말 어떤 공연 볼까?

연말연시에 연인 또는 가족, 친구가 함께 만드는 추억 중 가장 특별한 이벤트는 바로 공연 한 편.
불경기 속에 맞는 연말을 흥청망청 술자리로 보내는 대신,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공연장에서 한해를 마무리해보는 것은 어떨까. 글_ 김미림

뮤지컬 | 오페라의 유령

25주년 기념 월드 투어 내한 공연

뮤지컬의 전설 〈오페라의 유령〉이 한국에 온다. 2005년 월드투어 이후 7년 만에 찾아온 내한공연으로 원어 그대로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1986년 영국 웨스트 엔드, 1988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이래 최장기 공연, 최고매출, 최다관객 등 모든 기록을 석권한 뮤지컬 역사의 상징적인 작품. 많은 뮤지컬이 만들어지고 공연되고 있지만 '신이 내린 선물(The Times)'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강력한 마력으로 종연을 예측할 수 없는 작품은 〈오페라의 유령〉이 유일하다. 2012년 연말을 화려하게 장식할 〈오페라의 유령〉 내한공연은 명성에 걸 맞는 최고의 무대로 왜 이 작품이 세기를 넘어 최고의 찬사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다시금 확인 시킬 것이다.

일시: 2012년 12월7일~ 2013년 1월31일 **시간:** 평일 오후 8시, 토, 일, 공휴일 오후 2시, 7시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클래식 |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세계가 인정한 바이올린의 여제

2009년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전국 10개 도시 리사이틀 투어를 성공적으로 치른 사라 장이 국내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고자 2012년 12월 전국 리사이틀 투어를 가진다. 사라 장에 대한 모든 것을 증명할 이번 리사이틀은 탁월한 테크닉을 가진 신동에서 음악적 깊이를 더해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거듭난 사라 장의 놀라운 음악적 역량을 만나볼 수 있다. 그녀의 빈틈없는 기교와 성숙해진 음악적 깊이를 만나볼 수 있는 비탈리 〈샤콘느〉,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곡으로 편곡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음악에 대한 사라 장의 천부적인 감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바흐 〈G선상의 아리아〉 등 무엇보다 작품성과 대중성, 그리고 바이올린이 가진 기교와 깊이를 모두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일시: 12월16일 **시간:** 오후 7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콘서트 | 파트리샤 카스, 에디트 피아프를 노래하다

에디트 피아프의 아픔에 파트리샤 카스의 예술을 담다

프랑스의 디바, 파트리샤 카스(Patricia Kaas)가 7년 만에 내한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샹송의 전설'로 불리는 에디트 피아프(1915–1963)의 50주기를 기념해 세계 11대 도시에서 진행하는 투어 공연의 일환으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파트리샤 카스는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로 샹송을 표현,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온 프랑스 국보급 가수이다. 1987년 '마드무아젤 샹트(Mademoiselle Chante)' 앨범으로 데뷔한 파트리샤 카스는 전통적인 프랑스 음악에 팝과 재즈, 블루스를 가미한 음악으로 샹송에 현대적인 세련미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시: 12월2일~12월3일 **시간:** 2일 오후 7시, 3일 오후 8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News + Communication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관리자 워크숍 면접기술 및 인사고과 평가 교육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관리자워크숍이 지난 10월 27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면접기술 및 인사고과 평가를 주 내용으로 다룬 워크숍에는 의료원 산하 서울, 부천, 천안, 구미병원 계장급이상 수간호사이상 관리자와 각부서 팀장, 의료원 및 각 병원 주요보직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면접기술에 대한 강의와 모의 면접, 집중면접 시연 등을 통해 교육 성과를 높였다.

순천향대학교

대한민국 인재상 6년 연속 배출

순천향대학교가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를 6년 연속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본교 화학과 4학년 우샛별(23 · 여)양과 임상병리학과 4학년 김수정(23 · 여)양이 그 주인공이다. 대한민국 우수 인재상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바람직한 인재상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본교는 2007년 첫 수상자를 배출한 이래 6년 연속이며 전체 수상자는 9명으로 늘어났다.

한국대학신문 선정, 창업교육 우수대학

순천향대학교가 한국대학신문이 선정하는 2012년도 창업교육 우수대학에 뽑혔다. 순천향대는 창업을 특성화프로그램으로 지정해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복수전공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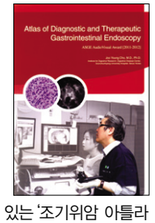
창업마케팅, 1인기업 창업론 등 30여개의 창업분야 전문교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이 창업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들의 창업문화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대학 최초로 기업가정신주간을 정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제1회 순천향대학교병원 소화기내시경 국제워크숍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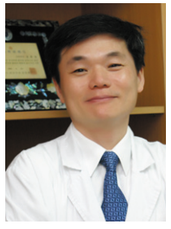
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가 개최한 제1회 순천향대학교병원 소화기내시경 국제워크숍이 9월 22일 동은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위장관 종양 및 췌담도 질환의 최소 침습적인 치료내시경 수술 및 최첨단 진단내시경의 사용 기법을 주제로 각 세부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독일 등에서 초청하여 강연과 시연을 선보였다. 또한 새로운 절개칼을 이용한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식도아칼라지아의 내시경 근절개수술(POEM), 내시경 점막하 수술(ESS), 최신 초음파내시경, 공초점현미경 내시경 등 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의 자랑거리인 신기술을 현장 생중계로 시연해 큰 관심을 모았다.

식도암, 조기위암, 소화기내시경 진단과 치료 교과서 출간



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 조주영 교수가 '식도암의 진단 및 치료' '조기위암 아틀라스' '소화기내시경 진단과 치료 아틀라스' 등 3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먼저 「식도암의 진단 및 치료」는 국내 의료진이 처음으로 저술한 식도암 교과서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화기내시경 진단과 치료 아틀라스'는 2011과 2012년에 미국 소화기병 학술대회(Digestive Disease Week)에서 수상한 교육 비디오 내용을 아틀라스 형식으로 출간했다. 일본에서 발간되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조기위암 아틀라스'도 공동 번역했다.

2012년 한해 SCI급 논문 13편 발표, 서울병원 비뇨기과 교수팀



서울병원 비뇨기과 송윤섭 · 양원재 · 두승환 · 김재헌 교수팀이 2012년 한 해 동안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원저 13편을 SCI급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Urology등 7개 학술지에 발표(7편 게재, 6편 게재 예정)하는 쾌거를 이뤘다. 13편의 논문 중 임상연구가 10편, 기초연구가 3편이며, 분야별로는 배뇨장애 관련 논문이 8편으로 가장 많았고 비뇨기종양 관련 3편, 복강경 수술 관련 논문이 2편이었다.

'질환별 FOCUS와 간호기록' 등 포켓용 책자 2권 출간

김순희 별7병동 수간호사가 간호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질환별 FOCUS와 간호기록'과 '소화기각종검사의 시술 준비 및 간호'라는 포켓용 책자를 발간했다. 간호기록 책은 간호사들의 체계적인 간호기록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제작한 책으로 임상에서 간호사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책자 구입은 소화기암상담실로 문의〈709-9036〉하면 된다.

정가는 '질환별 FOCUS와 간호기록' 8,000원 '소화기각종검사의 시술 준비 및 간호'는 9,000원이다.

김용진 외과교수 의료관광홍보대사 위촉

김용진 외과 교수가 2012 한국국제의료관광컨벤션에서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홍보대사에 위촉됐다. 2011년 김용진 교수로부터 고도비만수술을 받고 새 삶을 살고 있는 뉴질랜드 출신 재스민 샤샤가 같이 위촉장을 받았다. 재스민 샤샤는 수술 전 220㎏에 육박했지만 이날 개막식장에는 50%를 감량해 눈에 띄게 날씬해진 모습으로 등장해 참석자들이 입을 다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회복을 위한 MOU체결

부천원미경찰서와 부천병원이 9월 7일(금) 성폭력 사건 피해자 회복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성폭력 범죄로부터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협약으로 부천원미경찰서에서는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자경찰관이 조사를 실시한다. 부천병원에서는 증거채취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신체적 · 정신적 치료를 신속하게 진행해 피해자가 후유증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1회 부천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봉사 실시

부천병원이 『제1회 부천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봉사』를 9월 8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부천시 원미보건소 1층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부천병원 · 부천시보건소 · 부천시 가족여성과과 ·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부천지역의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진료를 받았다. 행사에는 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등 총 9개과 의료진과 교직원 50여명이 참석해 무료 검진 및 진료를 실시했다.

'1004 데이' 기념 봉사활동 전개

부천병원 간호부는 10월 4일(목) 본관 1층 택시 승강장 앞에서 20여명의 간호사와 부천 소재 미용실 소속 헤어디자이너 3명 등 모두 30여명의 봉사자들이 '1004 데이' 기념 이벤트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병원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혈당 · 혈압측정, 손 · 발마사지, 풍선아트, 이미용 서비스, 음료제공 등이 진행됐다. 부천병원 간호부는 병원간호사회가 지정한 1004 데이에 매년 색다른 봉사활동을 기획해오고 있다.

'Healthcare 3.0시대를 향하여' 주제로 콜로키움 개최

순천향대학교 u-Healthcare 연구센터와 부천병원이 'Healthcare 3.0시대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2012 u-Healthcare 연구센터 콜로키움을 10월 11일(목) 오후 5시 30분 부천병원 원내 제1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부천병원 교수진이 함께 모여 Healthcare 3.0 시대를 선도해나갈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향후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자리로 대학 및 병원 교수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교수별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순천향대학교 u-Healthcare 연구센터와 부천병원은 이번 합동 심포지엄을 계기로 향후 웰니스 및 헬스케어 전문기관으로서의 우위를 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병원 동정

김지훈 전임의 척추신경외과학회 우수발표 논문상
김지훈 신경외과 전임의가 9월 15일과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6차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우수연제상(나누리학술상)을 수상했다.

최태윤 진단검사의학과교수 SCL 정도 관리상
최태윤 진단검사의학과 교수가 9월 14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협회 추계학술대회에서 SCL 정도관리상을 수상했다.

노현진 신장내과 교수, 국제학술지에 논문발표 Hsp90억제제 항섬유화 효과 세계최초 규명
신장내과 노현진 교수팀의 '전환성장인자 2형 수용체 분해를 통한 Hsp 90 억제제의 신장섬유화 억제 효과' 논문이 국제 학술지 Laboratory Investigation에 게재 확정되었다.

송윤섭 비뇨기과 교수,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획득
비뇨기과 송윤섭 교수는 '방광수축력 저하로 인한 배뇨곤란의 발병기전 규명 및 줄기세포 매개 간증식인자 유전자 치료를 통한 방광수축력 회복 치료기술 개발' 이라는 연구제목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2012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하반기 신규과제에 선정되어, 2015년까지 총 1억6천 8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서울병원 비뇨기과 교실원
2012년 한 해동안 비뇨기과 교실원 송윤섭, 양원재, 두승환, 김재헌이 주요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참여한 원저 12편이 SCI급 학술지에 게재 확정되었다. 임상연구 9편, 기초연구 3편 등이다.

부천병원 동정

이윤나 전임의사/소화기내과
8.26. 6월 실시된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해 전국 수석으로 합격함에 따라 성적 우수자상을 수상.

최수정 교수팀/신장내과
8. 28. 신장내과팀(최수정,이설형,조은희,오혜란,김은정,박무용,김진국,황승덕)이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에 게재한 논문 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

박춘식 · 장안수 교수/호흡기알레르기내과
8월 30일.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탁월한 창의성을 발휘해 국내 · 외 저명 학술지에 우수 논문을 다수 발표한 공을 인정받아 2011년도 순천향대학교 최우수학술연구상 및 우수학술연구상을 각각 수상

박춘식 교수팀/호흡기알레르기내과
9. 1. 2012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제2차 기획과제에 대해 한국보건사업진흥원으로부터 연구비 7,000만원을 수혜

서존 교수/심장내과
10. 13. 혈관중재연구회 제27차 워크숍에서 주제발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Best Case Award를 수상

김응하 교수/정형외과
9.19~22.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O퍼시픽 학회에서 주제발표

김철희 교수/내분비대사내과
10.1~6. 독일에서 열린 EASD학회에서 주제발표

News + Communication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제7회 대한수혈대체연구회 학술대회 개최

제7회 대한수혈대체연구회 학술대회가 10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부천병원 별관 5층 향설대강당 및 별관 지하 1층 순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대한무수혈대체연구회 회원들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각 주제별로 발표하는 자리로 대한수혈대체연구회과 주최하고 부천병원과 세종병원이 공동 주관했다. 부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용익 교수, 외과 최규성 교수 등을 포함해 총 15명의 교수가 좌장 및 연자로 참가한 가운데 약 360명의 의료진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미얀마 의사 연수 지원 나선다

부천병원 한캄봉사회가 캄보디아 의사연수사업에 이어 미얀마 의사연수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한캄봉사회는 미얀마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시켜 나간다는 방침으로, 향후 미얀마 현지 의료봉사를 함께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얀마 연수 의사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제1차 미얀마 의사 연수 환영식이 10월 25일(목) 원내 순의홀에서 개최됐다. 미얀마 1기 연수의사들은 헤이마 안(27세, 여), 애찬 모모(26세, 여), 뗏숭 애(26세, 여) 씨 등 3명의 의사들로 이들은 향후 1년간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등에서 각각 연수를 받는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암환자를 위한 건강요리교실' 열어

천안병원은 9월 12일 병원 별관 강당에서 '암환자를 위한 건강요리교실'을 열었다. 건강요리교실은 병원 암센터가 지역 처음으로 개설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암환자들의 영양섭취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암환자들이 간편하면서도 충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을 추천해주고, 전문 요리사가 직접 조리법도 가르쳐 준다. 요리교실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천안동남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천안병원은 9월 19일 오후 2시 본관 주차장에서 천안동남소방서와 함께 화재대비 모의훈련을 가졌다. 훈련은 부탄가스 폭발로 인한 별관7층 병동 화재를 가정해 경보전파, 자위소방대 초동진화, 환자 대피 및 구조, 천안동남소방서 펌프차 지원 살수, 진화 및 정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병원은 매년 전체 교직원에게 소방 및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백의천사들 천사데이 봉사활동

천안병원 백의의 천사들이 10월 5일 향설송원에서 병원 이용 고객들을 위해 반나절 봉사활동을 벌였다. 혈당검사를 비롯해 혈압과 체지방 측정 등 간이 검사를 해주고 개별적인 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은 물론 간병인과 입원환자들이 함께 내려와 상쾌한 가을정취 속에서 영양팀의 협조 속에 다양하고 푸짐한 간식거리들이 차려지고 건강식단 전시회도 열려 찾는 이들의 입과 눈도 즐겁게 했다.

이봉주홍타령마라톤대회 의료지원

천안병원은 10월 7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4회 이봉주 천안홍타령마라톤대회'에 의료진을 파견해 성공적인 행사운영을 도왔다. 병원은 간호사 2명과 임상병리사 4명을 파견해 마라톤 참가 선수들의 체지방 및 혈압, 혈당 검사를 실시했으며, 앰뷸런스도 준비해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했다. 부스에는 많은 대회 참가자들이 찾아와 지친 근육도 치료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했다.

제 13회 간의 날 기념 '간질환 공개강좌'

천안병원은 제 13회 간의 날(10월 20일)을 맞아 지난 10월 9일 오후 2시 천안시 삼룡동에 위치한 천안박물관 강당에서 1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질환 공개강좌'를 열었다. 이세환 순천향의대 교수 등 천안지역 간질환 전문교수들로 진행된 이번 강연은 지방간 바로알기 일환으로 열렸으며 천안병원은 강좌에 앞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B형, C형 간염에 대한 무료 검진도 실시하고, 강좌 후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도 해 주었다.

천안노총의장배체육대회 종합우승

천안병원 노동조합이 지난 10월 14일(일) 천안시 백석동 천안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 19회 천안노총의장배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한국노총 천안지역지부 소속 40여 사업장이 참석한 이번 체육대회에서 천안병원은 남자부 승부차기 우승을 비롯해 훌라후프 돌리기 1위와 3위, 여자 100m 2위, 여자마라톤 3위와 6위 등을 기록해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진료

천안병원은 지난 10월 27일 오전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금년 마지막 무료진료 활동을 펼쳤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300여명의 아산시 거주 노인들이 봉사현장을 찾아와 천안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양질의 진료를 받았다. 서교일 이사장과 이문수 병원장도 직접 내과와 외과 진료에 참여한 이번 무료진료에서는 100여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총 13개 분야에 달하는 알찬 진료를 펼쳤다. 천안병원은 개원 이래 30년간 매년 4~5회 이상의 정기적인 무료진료 활동을 펼쳐 '인간사랑' 정신을 지역사회에 전해오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불산 관련 진료전담반 운영 및 건강영향조사 실시

구미지역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치료 및 검진을 받는 환자가 급증하면서 구미병원은 진료 전담반을 구성, 재난 사태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불산 피해 환자를 진료했다. 또한 환경부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단'을 구성한 가운데 우극현 교수가 단장으로 임명되어 피해주민 및 인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 및 추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건강강좌

구미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에서는 호흡기질환자들에게 건강한 삶을 찾아 주고자 10월 11일, 공개건강강좌를 개최, 임건일 교수의 '호흡기알레르기내과'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알레르기질환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가을 연주회, 전자바이올린 공연 선보여

구미병원은 10월 16일 로비에서 구미프라임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공연을 개최, 입원 생활에 지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큰 인기를 끌었다. 전자바이올린리스트 이승현씨의 다이나믹한 전자바이올린이 연주되어 '콘트라단자, 꽃밭에서, 아리랑' 등의 곡을 선보였다.

찾아가는 '농촌현장 이동종합병원' 열려

구미병원은 10월 20일, 농촌진흥청과 거창군, 경상남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거창군 동호마을에서 농촌현장에서 질병 진단 및 치료를 돕는 새로운 개념의 '찾아가는 이동식 종합병원'을 마련했다. 이동식 농업종합병원행사는 농업전문가와 의료진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맞춤형 봉사 활동으로 구미병원 봉사팀은 혈액 · 소변검사, 흉부 X-ray, 초음파, 골밀도 검사 후 호흡기 · 근골격계 · 척추질환 등의 진료와 약처방을 하며 주민들의 건강을 살폈다.

'2012 햇살아이세미나' 개최

순천향구미햇살아이지원센터(대표 이희경)와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11월 12일, 구미병원 향설교육관에서 '2012 햇살아이세미나'를 개최했다. 의료인 100여명이 참석한 세미나는 의료인이 앞장서 아동학대 신고 및 지원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세미나다. 주제 발표한 정형외과 지정우 교수는 "학대의 의료적 피해는 성학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지만 의학적 지식이라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다. 의료인의 작은 관심이 학대아동 발견의 시작점이 되는 동시에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문종호 교수/소화기내과
10.5~7. 타이완에서 열린 타이완 소화기병주간 국제심포지엄에서 초청강연

김진국 교수/신장내과
10.12~14. 일본에서 열린 일본투석접근학회에서 초청강연

천안병원 동정

도재원 교수 / 신경외과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신임회장으로 선출

문성택 교수 / 산부인과
10.6~13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산부인과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한선욱 교수 / 외과
10.8~12 독일에서 열린 IMM 2012에 참석

오형근 교수 / 신경과
10.11~17 미국에서 열린 ASBMR 2012에서 포스터 발표

이화영 교수 / 정신건강의학과
10.11~17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ECNP에서 포스터 발표

전섭 교수 / 산부인과
10.13~19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부인암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백무준 교수 / 외과
10.15~19 미국에서 열린 AACR에서 포스터 발표

전민혁 교수 / 감염내과
10.16~23 미국에서 열린 IDSA에서 포스터 발표

홍창화 교수 / 정형외과
10.22~27 미국에서 열린 NASS에 참석

이상미 교수 / 핵의학과
10.26~11.2 이탈리아에서 열린 EANM12에서 포스터 발표

장은철 교수 / 직업환경의학과
11.1~3 일본에서 열린 Asian Pacific Topic Conference에서 포스터 발표

심세훈 교수 / 정신건강의학과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발간 '청소년정신의학' 공동 집필
11.2~3 서울에서 열린 The 1st Asian Congress by World Federation of ADHD에 학술위원으로 참석

이세환 교수 / 소화기내과
11.8~14 미국에서 열린 AASLD 2012에서 포스터 발표

퇴직교원
이준영 교수(9월), 전영우 교수(10월), 이석호 교수(11월)

구미병원 동정

정선영 교수/ 신장내과
10/31~11/6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ASN Kidney week 2012 참석 포스터 발표

정태석 교수/ 재활의학과
11/5~11/9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 스포츠과학 워크샵에 참석, 연제 발표

우극현 교수 /직업환경의학과
11/1 우극현 구미호스피스회장, 구미예술회관에서 사랑의 쉼터 기금마련을 웰-다잉 연극제 개최

윤성용 교수/직업환경의학과
11월 8~9일 전북 부안에서 열린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서 논문 발표, 우수 학술상 수상

순천향의대 동창회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순천향의과대학 동창회의 활성화와 재정안정화를 바탕으로 의미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9월부터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향의대 동창회 서포터즈란?

순천향의과대학 동창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도 관심과 동참을 해주시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행동으로 동참해주시는 동문을 말합니다. 동창회가 계획하는 사업에는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하려는 자세와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동창회의 재정은 동문회원의 회비와 제약사의 광고 및 학술 비용 등이 큰 두 축이 될 것입니다. 저희 동창회는 해당제약의 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광고비로 동창회재정과 사회기여 및 공익적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서포터즈로 참여해주시는 동문 선생님들께서 광고하는 해당 제약회사의 제품에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동창회는 큰 힘이 됩니다.

저희들은 동창회에 들어오는 광고비를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려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둘째: 탈북자의 자녀들 특히 청소년들의 안정된 정착과 생활을 위한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셋째: 장애아동 이나 난치병 환자를 위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넷째: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37대 의협을 위해 발전기금을 내는 최초의 의과대학 동창회가 되려고 합니다.

동문여러분! 착한 소비란 의미를 아십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생산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위해서 자기의 손실이 약간 있더라도 구매를 해주는 소비자들의 소비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정무역커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의 처방은 좋은 일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가치로운 착한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께는 직접 대가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착한 처방은 따뜻한 마음, 훈훈한 사랑의 느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착한 처방!!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서포터즈는 2012년 9월 10일 현재 166명입니다.

부회장 반성환 (5회)

순천향의대 동창회 발전기금 모금 현황 (2011. 6. 18 ~ 2012. 10. 11)

■기금모금 참여 동문수 : 592 명
■총 기금모금액 : 171.940.000원(일억 칠천백구십사만원)

■기탁자명단 및 금액
이성근(2회,동창회장): 2천만원/ 유재명(3회,홍성): 1천만원
김도권(3회,구미지역이사): 1천만원/ 백상업(4회,총무이사): 1천만원
함정식(10회,재정이사): 1천만원/ 원성윤(9회,총무이사): 7백만원
윤석환(3회,재경이사): 3백만원/ 문종호(6회,부천내과): 3백만원
박래경(12회,홍성): 3백만원/ 김범태(부회장): 2백만원
이선학(7회,학술이사): 130만원/ 김형철(1회,자문위원): 1백만원
김동원(2회,부회장): 1백만원/ 김태호(4회,재경부회장): 1백만원
이 규 (5회,천안): 1백만원/ 반성환(5회,부회장): 1백만원
김재만(6회,경리이사): 1백만원/ 김대익(8회,지역이사): 1백만원
이호수(8회,정보이사): 1백만원/ 오경환(1회,아산): 5십만원
오경환(1회,아산): 5십만원/ 익명 (Oxx, ?) : 1백만원

■기금약정명단(임원)과 금액
이성근(회장,3천만원)/ 원성윤(총무,3백만원)/ 이승대(조직,3백만원)/ 김범태(부회장,2백만원) 김연선(부회장,120)/ 김용익(감사,1백만원)/ 민영기(부회장,1백만원) 임수재(총무,1백만원) 이태훈(섭외,1백만원)/ 박재상(총무,1백만원)/ 이성진(총무,1백만원)/ 김대환(장학,2십만원)
(기금총액에는 약정금액이 포함 되지 않았습니다)

■기수별명단
14회(기대표: 노성래): 57명/ 5회(기대표: 강정협): 56명/ 3회(기대표: 구선곤): 46명

■지역분담금
인천지회:1천만원/ 홍성 · 예산지회: 3백만원/ 보령 · 대천지회: 1백만원/ 청주지회: 백만원 / 재경 송파,강동,하남지회: 1백40만원/ 파주지회: 1백만원

■대학병원(구미순동회 2012년): 3백20만원

■기수별 분담금: 4회(기대표, 김창헌): 1백만원

*** 월 만원모금운동 참여! (또는,연 십만원:하나은행 662-910022-17605 순천향의대동창회)**
-작년에 참여하신분들도 이제 다시 참여해주시고 미처 함께하시지 못한 동문들께서도 이번 달부터 월 만원(연 십만원)모금운동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창회행사 모임 및 기금모금에 동문 여러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자동이체 바랍니다(월 1만원). 일시불인 경우 연 10만원 뜻있는 동문님 기부금 바랍니다!
-하나은행 662-910022-17605 순천향의과대학동창회

*** 순천향의대 동창회사무실(임시)**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6-32 유진빌딩 2층
-Tel: 032)546-7174, 총무이사 백상업(010-5273-2031),간사(010-4147-5211)
-E-mail: jaws62@naver.com
-동문님의 전화번호,주소 변경 및 애경사등 소식을 언제든 기다리겠습니다!)
-동창회 홈페이지 : schmd.net

Letter of Thanks

국제진료센터 김진리 교수에게 온 감사편지

I returned to the US several days ago and have since talked to Linda and Lyndsie almost every day.
나는 며칠전에 미국에 귀국하였고 한국에 아직 있는 우리 식구들과 거의 매일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I want you to know how much the 3 of us appreciate the job each of the doctors and nurses have done for my daughter since she arrived.
우리 딸이 그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담당 의사선생님을 비롯하여 다른 의사선생님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우리 셋이 정말로 많이 감사하고 있다고 전달하려고 이번에 메일을 보내게 되었어요.

I particularly want to thank you personally.
특히나 김 선생님한테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Your concern and compassion is apparent. Even though Lyndsie still has a way to go, your interest and attitude is playing a big part in our hope and optimism.
아직 우리 딸이 완벽하게 회복 되기에는 갈 길이 멀었지만 당신의 그 관심과 열정이 가득한 태도 그리고 배려가 우리 딸한테 희망을 줍니다.

I am telling everyone I know that you have a great hospital with great people.
순천향병원이 얼마나 좋은 병원이고 또한 좋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Steve Coon
스티브 쿤

SCH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SOONCHUN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59(한남동 657)
http://www.schmc.ac.kr

서울병원:02)709-9114

부천병원:032)621-5114

천안병원:041)570-2114

구미병원:054)468-9114